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10 2016

VOL. 24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 SAMSUNG

#FreeYourMove



**Gear Fit2**  
GPS Sports Band



**Gear IconX**  
Cordfree Earbuds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Samsung Mobile Indonesia



@Samsung\_ID



Samsung\_ID



Samsung Indonesia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5	0705 <sup>h1</sup>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20	2010	매일	77W

\*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 초보자 및 경력자를 위한 맞춤 교육 시스템

스크린 골프 5 룸  
VIP 룸 1 개포함



Driving Range (1 시간)	<b>Rp. 100.000</b>	2개월	<b>Rp. 3.375.000</b>	FREE 4 driving range
Driving Range (2 시간)	<b>Rp. 160.000</b>	4개월	<b>Rp. 8.400.000</b>	FREE 8 driving range
Screen Golf (1 시간)	<b>Rp. 200.000</b>	8개월	<b>Rp. 14.300.000</b>	FREE 11 driving range + 1 screen golf
		1년	<b>Rp. 22.000.000</b>	FREE 14 driving range + 2 screen golf

## 사은 행사



UP TO **IDR 350,000**

200/500/7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Terms & Conditions Appl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Service Lounge (2F)

## 신규 오픈



ITALIAN TRAVEL BAGS  
SINCE 1952

100만 루피아  
상품권 증정

2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9월29일 ~ 10월16일)



## 스페셜 바자



“락앤락” 창고대개방  
(10월 8일 ~ 16일) | GF

## 스페셜 이벤트

**KidsFest 2016**  
Ayo Bermain, Bergembira dan Berprestasi!

10월 15일 ~ 16일

• 재미있는 어린이 놀이공원 • 흥미있는 어린이 대회 •  
다양한 어린이 이벤트를 함께 즐기세요



# Singapore School Bona Vista

유치원 - 초등 - 중등 - 고등학교

## 뛰어난 학습성과

초등과 중등 과정 Cambridge 국제시험 (CIE)에서 꾸준한 상위 성적

Cambridge IGCSE 중 3과목에서 인도네시아 내 최고 성적을 거둠

세계평균이상의 IB DIPLOMA 결과를 나타냄

## 세계 수준의 교육

Singapore, Cambridge 및 IB Diploma 프로그램

실력있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EARLY BIRD

PROMOTION

## 그 외...

심도있는 ESOL (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과 중국어 프로그램

가족적 분위기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우수선수들을 위한 SIS 아카데미 장학제도



JL. BONA VISTA RAYA, LEBAK BULUS, JAKARTA SELATAN 12440 PHONE 021 - 759 144 14



# JIKS

## 2016학년도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 안내

1. 시험일자 : 2016. 11. 26. 오전(토)
2. 시험장소: JIKS 초등과정 교실(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3. 응시비용: 인원 확정 후 추후 공지(응시료는 급수 별로 차등 부과됨)
4. 응시대상: 초, 중, 고 전 과정 희망 학생(타 학교 학생도 응시 가능)
5. 신청기간: 2016. 09. 08.(목) - 2016. 09. 23.(금)
6. 접수급수 : 8급, 7급, 6급, 준5급, 준4급, 4급, 준3급, 3급, 2급, 1급, 사범
7. 준비사항 : 응시원서(희망서 제출 학생에게 추부 배부), 사진 2매 (3\*4), 응시료
8. 수험안내
  - ① 각 급수 대비 책자를 JIKS 문구점에서 주문 제작하여 판매예정
  - ② 한자자격 홈페이지(www.hanja114.org)를 참고하여 급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교재구입 희망서를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책자를 구입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방법: ① JIKS 재학생의 경우 담당교사에게 응시희망서 제출
  - ② 타학교 학생의 경우 아래 응시 희망서의 내용을 기입하여 담당교사에게 이메일로 제출  
- 담당교사 : 초등 송미례 jikssong@hanmail.net  
중등 정연남 asako91@naver.com

Korea Festival  
2016

Experiencing  
**CREATIVE | KOREA**

10월 문화의 달 주요일정

행사명	일정	장소	주요프로그램
K-트래블 페스티벌	9.30~10.2	롯데쇼핑애비뉴	가을·겨울 방한 관광상품 판촉전, K-POP 커버댄스&노래 경연, 언버벌퍼포먼스 '파이어맨', '난타' 공연, 태양의 후예 포토존
K-씨푸드 페스티벌	9.30~10.2	만다린 오리엔탈호텔, 골라빠가딩 롯데마트	한국수산물 무료시식회, 요리시연회, 한복 포토존, 수출상담회
K-콘텐츠 페스티벌	10.6~8	인도네시아 국제컨벤션 전시장 (ICE BSD)	K-콘텐츠 전시체험관, K-콘텐츠 페어, K-푸드 홍보관, K-POP 콘서트,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KOCCA 사무소 개소식
K-푸드 페어	10.8~9	코타카사블랑카	K-푸드 홍보관, K-푸드 특별홍보관, K-푸드 키친관, 온라인 역직구존, K-스타일 문화체험관, 아이돌 B.I.G 콘서트 및 팬사인회, 할랄세미나, 수출상담회
한-인니 태권도한마당	10.8	ICE BSD	대사배 태권도대회(품새, 겨루기 등) 찾아가는 태권도교실, 태권도 전시회, 포토존
한-인니 미디어 설치미술 전시회	10.21~11.3	파타힐라 갤러리	한-인니 신진작가 초청 전시회
자카르타 패션위크 한국특별세션	10.22~28	스나안시티	한-인니 중견 디자이너, 한-인니 신진디자이너, 한-인니 브랜드 패션쇼
한-인니 영화 페스티벌	10.26~30	자카르타, 땅그랑, 족자, 반둥, 수라바야, 버카시 CGV 상영관	10.26 영화제 개막행사 한-인니 우수영화 상영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 <http://www.innekorean.or.id> )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지난 한인뉴스 9월호부터 새롭게 제호를 써주신 **삼여 박재광**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삼여 박재광>

동의대학교 대학원 졸업(동양철학전공)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  
삼여서화원 운영(부산)

고국의 가을은  
바람으로  
깊어진 하늘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풍성한 문화 행사들로 가을의 절정 10월을 맞이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지 않는 한  
언제나처럼 내게 거리를 두고 있는 강연, 전시, 공연....

머리를 비우고 손을 비우고  
내 안의 빈 곳을 확보하여  
크고 작은 예외들로 채우러 나서 보는 것은  
새침한 가을날을 친구로 만드는 기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10 논설위원 칼럼 | 무관용주의 <김문환>
-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 21 최진열의 경제를 말한다
- 31 공감, 인도네시아 <김성월>
- 32 집중! 이사람/ 백우정 교장
- 34 단편소설/ 무임승차 <배동선>
- 38 꼭 이루고 싶었던 꿈 <최우호>
- 42 지역한인회 소식/  
2016 반등한인회 체육대회 <배한나>
- 46 인도네시아 맛집도 스마트하게 찾기/ 박상훈 칼럼
- 48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정주은>
- 51 9월 월간뉴스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54 지상갤러리 <권미선>
- 56 행복에세이 <김은숙>
- 58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62 김종성의 생활법률/ 그것이 궁금하다
- 64 인도네시아 민법(9) <이승민>
- 66 UPH <김가람>
- 68 움뿔뿔곡 <이승진>
- 69 생활정보



닥종이 인형 (2016. 9. 27/ 자카르타 꼬망 리뽀몰 수공예품 전시장)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 @dqdoodle ]



## 무관용주의

글: 김문환 논설위원

대통령이 되면 모든 범죄자들을 처단해 피바다를 만들며 범죄자들의 시체를 마닐라만에 처넣겠다고 공언해 왔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지난 6월 30일 필리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지방검사 출신으로 1988년이래 필리핀 제 2의 도시 다바오 시장을 역임하며 막말과 기행으로 인기를 모아온 정치인이다. 취임 후 6개월 내 범죄근절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경찰관과 군인이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다 형사책임을 지면 사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마약사범에 관한 한 무관용주의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17명의 무장그룹이 중부자와 소재 쯔봉안(Cebongan) 교도소에 들이닥쳐 바로 전날 족자카르타 경찰서에서 이감되어 온 네 명의 피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한 사건이 있었다. 불과 15분 사이에 벌어진 보복성 즉결처형 사건이었다. 바로 이 네 명의 희생자들은 슬레만(Sleman) 시내 한 카페에서 근무 중이던 전직 육군특전사 요원과의 시비 끝에 끼인 병으로 그를 살해한 용의자들로서 4일전 경찰에 검거되어 수감 중이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무관용주의’의 한 단면이었다.

이보다 훨씬 앞서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공권력을 제쳐놓고 조직적으로 초법적인 행동을 자행한 전례를 남겨 지금까지도 아픈 상처로 남아 있는 사례가 있다. 군부철권정치가 극에 달해 있던 1982년 초 자카르타를 비롯한 자와 지역 몇몇 대도시에서 벌어진 ‘우범자 즉결처형’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비밀작전은 당시 무소불위의 법치기관 치안질서회복사령부(Kopkamtib)를 이끌던 수도모 제독 재임말기부터 준비작업이 시작되어 그 후임이 된 베니 무르다니 장군 재임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1983년 5월 3일 남부 자카르타 우범지역인 블록 M 상업지역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시신을 신호탄으로 ‘미스터리 저격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며, 관련기사가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으며 정조준 된듯한 두세 발의 총상흔적이 남아 있는 게 공통점이었다. 똑같은 사건들이 이젠 수라바야, 스마랑, 족자카르타 등

대도시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3주가 지난 5월 21일 베니 사령관은 대통령을 면담하고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작금의 ‘미스테리 저격사건’은 우범조직간의 이권다툼에서 나온 보복사건일 뿐, 정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를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다. 공식발표만 따르더라도 1983년 한 해 동안 532명, 1984년 107명, 그리고 1985년에는 74명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피살된 희생자들은 강, 바다, 산중에 유기되어, 발견되지 않은 시체만 따져도 공식집계 수사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였다. 그런데 이즈음 시사주간지 템포(Tempo)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이 ‘초법적인 조치’를 지지한다는 반응이었다. 범법자들을 아무리 재판에 넘겨봐야 금방 감옥에서 풀려 나와 재범을 일삼을 바에야 차라리 없애 버리는 편이 낫다는 여론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동향과는 달리 국제여론은 이를 방관하지 않았다. 제일 먼저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앞장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이즈음 네덜란드 외무부장관 한스 반 덴 브루크(Hans Van Den Broek)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면서 파트너인 목파르(Mochtar Kusmaatmadja) 외무부장관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이 처형되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목파르 장관을 압박하였다.

이후 국제적으로 문제가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이 사건은 서둘러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평민으로 돌아간 수하르또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당시 사건에 대해 정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엔 범죄행동이 잔인하고 확산되는 추세라 할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국민들도 대 찬성이었고……”

선거공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사망자를 불러온 필리핀 마약범죄 소탕작전은 인도네시아에서 그랬듯이 한계에 부딪치는 느낌이다.

글로벌화가 되어 국가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작금의 지구촌은 서로 허물없이 교류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 되었다. 인권선진국을 표방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견제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담 개막 전에 미국-필리핀 양국정상회담 석상에서 논의될 의제 중에 마약범 소탕과 관련된 인권문제가 들어있다는 암시를 받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막말을 섞어가며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참모진들의 의견을 구한 후, 하루 전에 이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외교적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두테르테는 필리핀 인권문제를 자주 거론하였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주관한 아세안-유엔정상회담마저 보이콧하였다.

이와 같이 비엔티안에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차 곧장 자카르타에 들어왔다. 인도네시아를 지리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형제국이라 칭하며 술루해 석탄운반선 선원납치사건, 필리핀 쿼타를 이용한 인도네시아 무슬림 메카성지순례, 남중국해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준수 등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유연성과 기민성을 보여 주었다. 형제국이라 표현한 것은 아마 1963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흩어져 있는 멀라유족(Melayu)을 비정치적으로 통합해 보자는 구상이 필리핀 마카파갈 대통령에 의해 제창되었던 당시를 연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 ‘마필린도(Maphilindo)’라고 지칭되었던 당시의 구상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의 대결정책으로 빛나가면서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 구상이 확대되어 아세안(ASEAN)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형제간의 우의가 큰 일을 해냈다고 자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에서의 ‘즉결처형’도 30년 전에 이를 선행(先行)한 적이 있는 형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일까?



대사의 일기 제5화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임명보”



반기문 장관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말을 아꼈다. 아세안 주재 대사들은 “총장”이 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라는 점을 들어서 “안보리” 진출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본부는 본부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총장” 선출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 비하여, “안보리” 진출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2014년부터 득표활동을 통하여 성공률이 훨씬 높은 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불확실한 것을 택하여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주문은 무책임할 수 있다. 더욱이 불과 1년여 전만 해도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그러한 주문을 하고 있으니 본부 담당 직원들은 나에게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당시 유엔 담당 직원들은 동남아 지역 정세의 변화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당시의 서울 분위기는 인도네시아, 아세안의 외교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아세안 경시풍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 직원들이 아세안 주재 대사들의 주장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최근 외교 성장세를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이 염려스러웠다.

반기문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추진하다. 나는 “안보리”를 포기하는 문제가 빠른 시일 내 결론내기 힘들고, 또한 장관급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이 가능할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반 장관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작정하였다. 앞에서(제3화) 언급하였듯이, 반 장관이 하산 장관을 초청하였으나 반 장관이 먼저 와달라는 인도네시아의 회신이 있었다. 나는 이 회신을 가지고 공관장에 참석하였던 것이다.

인도네시아 외교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그 해 최대 현안이었다. 앞에서 이야

기한 대로, SBY가 취임 초기에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효과도 차츰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인도네시아가 안보리 진출에 실패한다면 국내외적으로 SBY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하산 장관은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이 아닌 자카르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반장관이 먼저 자카르타를 방문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하산 장관의 복잡한 계산법까지는 헤아리지 못하고 두 장관이 속 내용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반 장관에게 공관장 회의를 마치고 귀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다. 그 자리에는 유엔 담당 직원도 참석하여 “아세안 비켜가기” 전략을 들어 인도네시아 방문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반 장관은 4월 초 방문하는 방향에서 검토해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방문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 반 장관과 하산 장관의 暗中摸索

나는 공관장 회의로부터 귀임한 직후부터 이 나라의 유엔 전문가들을 본격적으로 접촉하였다. 알리



수라키얏 태국외교부장관

알라타스 전 외교부 장관, 전직 유엔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들, 유엔에서 근무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났다. 외교부, 대통령 궁 사람들도 만났고 유엔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도 만났다.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총장 경선에 나선 태국 후보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지 않지만 아세안 정상들이 태국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인도네시아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둘째, 한국과 태국이 “총장” 문제를 두고 싸우다가 자칫 동구권으로 지역 연고권이 넘어갈 수 있다. 셋째, 한국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취하려는 것은 욕심이 과하다. 한국이 “총장”, 인도네시아가 안보리 진출하는 방안이 두 나라가 win-win 하는 조정안이 아니겠느냐고 나를 압박하였다. 심지어 외교부 사람들은 득표율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득표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를 그대로 믿을 필요도 없어서 나는 웃음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었다.

반 장관이 2006.4.2-4 자카르타를 방문하였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은 6년여 만에 처음이다 (국제회의 참석차 자카르타 방문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방문 기간 중 배석자도 없고, 기록도 남기지 않는 장관 두 사람만의 면담을 1 시간 이상 가지기도 하였다. 당시 정황에 비추어 두 장관 공히 총장 문제와 이사국 진출 문제를 두고 마음대로 타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다만, 장시간의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의 공간을 만들기를 바랐다. 그러한 취지에서 그와 같은 단독 면담을 추진하였다. 단독 면담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 즉, surprise는 없었다고 한다.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 장관인들 솔직한 이야기를 수행원이나 나에게 할 수 있었을까.

반 장관이 4.3 유도요노(SBY) 대통령 예방을 갔을 때 SBY가 예상치 않게 “총장” 문제를 먼저 꺼내면서 성공을 기원한다는 격려의 말을 하였다. 손님에 대한 단순 의례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의 해석도 가능한 말을 한 것이다. 그의 도가 어떻든 매우 듣기 좋은 말이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영어 어휘 구사 능력은 한국 사람보다 한수 위이다. 당시 SBY의 한 마디가 이를 보여주었다. 반 장관이 이를 받아 고무적인 말씀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자 SBY가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 사안의 민감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총장” 후보 경선에 혼전 양상이 나타났다. 인도 후보 설이 나오고 스리랑카 후보가 경선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표. UN 사무총장 경선 후보 명단). 이러한 가운데 태국 후보인 수라키얏 외교부장관 (사진)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하여 공동 전선 구축을 계속 요청하였다. 아세안 대사들이 공동으로 주재국에 대하여 아세안(태국) 후보를 밀어달라는 로비활동을 전개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4월 발리에서 개최된 외교부장관회의에서 문서로 채택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외교부장관들은 과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태국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아세안이 합심하여 제3국에 대하여 태국후보 지지 교섭을 벌이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태국은 정상회의의 합의를 이행할 구체

행동 요령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태국 후보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당시 아세안 의장국)의 배려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개인적 추측이다. 태국은 차선책으로 아세안 사무국(자카르타 소재) 명의로 태국 지지 공한을 제3국에 발송해 주기를 바랐으나 사무국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아세안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엔 사무총장 경선을 두고 후보들의 혼전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만일 아세안 10 개국이 태국 후보를 단합하여 밀어준다면 그 영향력은 한국을 능가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의 이웃인 중국(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일본(안보리 비상임이사국)마저도 아세안이 단합하여 민다면 한국보다 아세안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다. 안보리의 다른 상임.비상임 이사국들도 아세안이 합심하여 태국 후보를 밀었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반 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한지 2 달 후 하산 장관이 6.8-10 한국을 방문하였다. 즉 자카르타 지진

때문에 SBY 6월 방한이 연기되면서 하산 장관이 대신하여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제3화). 하산 장관이 한국을 찾은 본심은 아마도 한국 방문에 대한 SBY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안보리” 진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국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도착 첫날 외교부 장관 회담에 이어, 하산 장관을 위한 만찬이 외교부 장관공관에서 있었다. 나는 하산의 방문에 동행하여 귀국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교부 장관의 한국 방문의 경우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의 귀국을 허용하지 않으나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나의 귀국 건의를 받아들였다.

만찬이 끝난 후 나는 반 장관과 단독으로 만나서 7월 SBY 방한 시에는 “총장”, “안보리” 문제에 대하여 매듭을 지어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이 문제가 정상 간에 매듭지을 문제라는 점(문제의 민감성, 중대성에 비추어 외무장관간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 둘째 우리가 “총장” 캠페인에 전념하면서 “안보리” 득표활동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당시의 정황, 셋째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일차 투표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실제 7월 실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나는 7월 SBY 방한 때 안보리 진출을 인도네시아에 양보하고 “총장” 캠페인에 올인 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그 전까지 나도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쪽에 올인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결심할 시기라고 다그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 장관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아무런 언질 없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 무현대통령도 그 주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선출의 전망이 불투명한 단계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경쟁을 포기하자고 건의하기 힘들다는 심적 부담감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무엇일까?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 후보를

민다는 언질을 받아내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뒤집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할만한 “행동”이 무엇일까. 본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였고, 현지 대사로 부임하여 “이사회” 진출 양보를 주장한 나로서는 그 답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저런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장관공관을 떠났다.



Hassan Wirajuda

다행히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안이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노대통령은 하산 장관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총장” 관련 인도네시아 입장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유연성을 보이는 발언을 하였다. 나의 일기장에 적힌 노 대통령의 언급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태국 후보 지지하는 정도의 절반만이라도, 심정적이라도 우리를 도와주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선거의 경우에도 1차 투표에서 결론이 안날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인도네시아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 하였다. 노 대통령도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1차 투표에서 태국 후보가 탈락하면 한국을 지지해달라는 주문은 인도네시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책을 제시한 셈이다. 노 대통령의 말은 내가 자카르타로 돌아가서 인도네시아 측을 압박하면서 자주 인용하였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빠라마아파트 화재피해 한인입주자에게 지원성금 전달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9월 27일 6시, 빠라마아파트 로비에서 화재 피해 한인주민 지원 성금 및 물품을 빠라마아파트 한인 입주자(40세대/ 대표 김남식)에게 전달하였다.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30분경 발생한 빠라마아파트(남부자카르타 짚란닥 소재) 화재로 인한 피해 한인주민돕기성금(8월20일~9월10일)을 모금한 결과 성금 4억1천6백6십만 루피아 와 2천만 루피아 상당의 상품권과 2천만 루피아 상당의 식품이 기부되었다.

이 성금은 한 동포의 소외됨이 없이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한 공동의 경비로 사용될 것이다.

그 동안 한인회는 대사관과 더불어 수차례 피해주민 및 아파트관계자와 의료비, 이사비용, 가구별 피해 보상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빠라마아파트 피해주민 김남식대표는 “화재 사고가 난 첫 날부터 달려와주신 한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 한인동포들 및 여러 한인단체에게 감사를 드린다.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 많은 위로가 되었다” 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인회는 아파트피해주민과 함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과 개별적으로 어려운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 바라મા아파트 화재 지원성금 후원 명단

\* 후원 송금일 순

번호	구분	단체·법인 및 개인	대표명	후원액(Rp)
1	"법인 및 개인 (27)"	TUNAS SAWA ERMA	승범수	100,000,000
2		태원 인도네시아	양영연	20,000,000
3		KEB HANA INDONESIA	이화수	20,000,000
4		SEPULUH SUMBER ANUGERAH	황의상	20,000,000
5		AGRI TRADING INVESTMENT	배정옥	10,000,000
6		AURORA WORLD INDONESIA	홍기호	10,000,000
7		BUSANA PRIMA GLOBAL	박재한	10,000,000
8		CIPTA ORION METAL	김준규	10,000,000
9		DONG JUNG INDONESIA	조규철	10,000,000
10		FEEL BUY INDONESIA	유주완	10,000,000
11		INDO SUNGIL JAYA	신규태	10,000,000
12		PAKUWON GROUP	이윤상	10,000,000
13		QUTY KARUNIA	김문수	10,000,000
14		SHINTA WOO SUNG	최덕열	10,000,000
15		WOORI CONSULTING	김민규	10,000,000
16		YEEN DONG SUE	서태수	10,000,000
17		YONG WOO INTERNATIONAL	안윤근	10,000,000
18		개인	이기욱	10,000,000
19		대한체육회 버카시 5인		10,000,000
20		DONG SON INDUSTRY	손한평	5,000,000
21		GLOBAL FIBERINDO	최정남	5,000,000
22		무기명(No name) 납부자		5,000,000
23		GEE SAN INDONESIA	이정휴	3,000,000
24		DUNIA TIMUR	이태복	2,000,000
25		미라내추럴		600,000
26		중고나라	여석호	500,000
27		Dress By Deprun		500,000
28	"단체 (7)"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30,000,000
29		재인도네시아신발협의회		10,000,000
30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10,000,000
31		열방교회		10,000,000
32		재인도네시아건설협의회		10,000,000
33		재인도네시아봉제협의회		10,000,000
34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 지부		5,000,000
총 성금액				Rp.416,600,000

## 바라મા아파트 화재 지원물품 명단

번호	후원업체	대표명	내역
1	무궁화유통	김우재	상품권 (2천만 루피아)
			식품 (2천만 루피아 상당)



##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최병우)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을 28일 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최병우 대한체육회 회장, 조태영 대사, 양영연 한인회장,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이종현 선수단장과 선수 등이 참석하여 선전을 다짐했다.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를 대표하여 \*축구 18명 \*테니스 6명 \*볼링 12명 \*골프 4명 \*탁구 2명 \*스쿼시 2명 \*태권도 8명 등 모두 8개 종목 52명의 선수와 임원 61명이 참가, 7일간 열띤 경쟁에 들어간다.

최병우 회장은 “적도의 타오르는 열정을 한국에 알리어 한인동포들의 힘을 보여주자”면서 “이번 체전을 위해 선수 여러분들 모두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그동안 수고한 임원 및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조태영 대사는 “전국체전은 한인사회 단합의 축제이다. 경기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긴다면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다.”라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기량을 뽐내고 즐기는 자리이며,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축제의 한마당 잔치이다. 서로 교류하며 아름다운 감동과 추억을 만들어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1년 6월24일 대한체육회 지부를 창립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자격을 얻은 재인도네시아 선수단은 20여개국 선수단과 화합하고,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5개 종목, 71명의 선수단이 처음으로 출전한 후 6년 연속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지난 체전에서는 일본 우승, 중국 준우승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3위를 차지했다.



# 2016 코리아 페스티벌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은 ‘2016 코리아 페스티벌’을 30일, 롯데쇼핑 에비뉴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무역협회는 인도네시아 관광부, 창조경제위원회와 협력하여 2016년 10월 문화의 달 ‘Korea-코리아페스티벌’을 롯데쇼핑 에비뉴, CGV-Blitz 상영관, 인도네시아컨벤션전시장(ICEBSD)등 주요행사장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경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K-콘텐츠와 게임, K-pop 콘서트, K-푸드, K-트래블 페어, K-패션, 한-인니 영화페스티벌, 한-인니 미디어 설치미술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한국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태영 대사, 양영연 한인회 회장, 인니 관광부 Senior Advisor Mr. Robert D. Waloni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식행사로 테이프 커팅 후 ‘난타’ 공연이 이어졌다. 신명나고 유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난타’의 화려한 무대에 관객들은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태영 대사는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자카르타 외 다른 지역에서도 열린다”며 “양국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쌍방향 문화교류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인회 양영연 회장은 “넉넉한 가을인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방문하기 좋은 시기임”을 강조하고 “여행으로 새로운 도전과 꿈, 희망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6 개천절과 국군의 날 경축행사

**개**천절과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조태영) 주최 행사가 8월30일 저녁 자카르타 Fairmont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 행사에는 대사관, ASEN, 현지고위관료들과 인도네시아 주재 주요 국가의 대사부부를 포함한 주재국 외교관, 한인회, 상공회의소 등 교민사회 주요인사 500여명을 초청해 인도네시아와 교류를 한층 넓히며,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자리였다.

이날 조태영 대사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두 나라의 국가를 부르는 순서로 경축행사가 시작됐다.

양국국기를 사이에 두고 조태영 대사는 “양국의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양국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겠다” 고 밝혔다.

국경일 행사에 단연코 빠질 수 없는 한식메뉴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불고기, 송편, 약과 등 정갈하면서도 다양한 한식 요리를 준비하여 만찬을 즐겼다. 또한 코리아 페스티벌 홍보자료와 김 등을 준비해 참석자 모두에게 배부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국경일을 기억하게 하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 인플레이션, 환율 그리고 통화정책

글: 최진열 부장(KEB 하나은행)

인도네시아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동월대비(Y/Y) 상승률이 2009년 12월 2.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79%를 기록했다. 같은 지표의 8월 월간상승률은 -0.02%(디플레이션)을 기록, 올해 1~8월 누적 물가상승률을 2.24%로 묶어 놓고 있다. 8월의 디플레이션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진 라마단 금식월 및 르바란 연휴 이후 식료품, 교통,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가격이 정상화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료보조금 개혁 등으로 2014년 연간 8.36%까지 치솟았던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정부의 정책목표인 4%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관리수준은 민간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 뿐만아니라, 통화정책을 통한 정부의 경기대응능력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9월22일 기준금리인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를 5.25%에서 5.00%로 0.25%p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인하 조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데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환율과 물가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루피아화는 달러대비 약 5% 절상되며, 물가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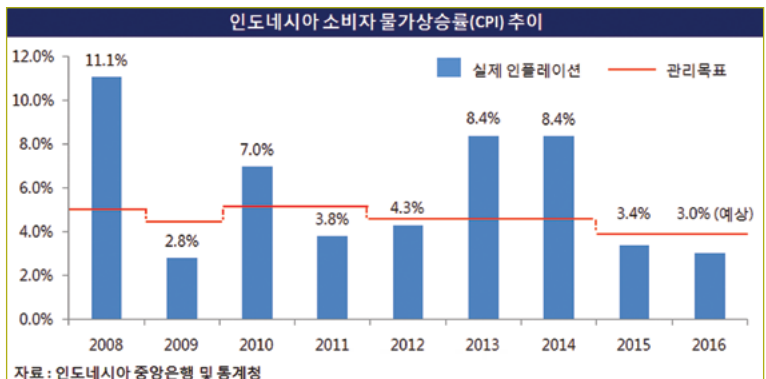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9월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0.25%p 인상 이후 올해 열린 6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각국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인플레이션'을 매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9월 중 일부 국가는 금리 '인하'를, 다른 일부는 '동결'을 선택했다.

관리 가능한 물가수준을 유지 중인 인도네시아가 목표치인 7%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찍으며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데 이어, 브라질 역시 환율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10월 중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자국화폐 강세로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를 크게 밀치고 있는 뉴질랜드는 9월 금리동결을 선택했지만,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달리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 중인 필리핀은 9월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두테르테 정권 출범 이후 2분기 GDP 성장률이 7.0%를 기록할 순항하고 있는 경제 여건 감안 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있는 통화정책 카드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세사면 1차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해외자금 환류 효과 기대감이 반영되며 9월말 기준 미 달러화 대비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환율과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감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 확대 및 연내 추가 금리인하라는 정책 수단의 활용에 보다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CPI increase	11.1%	2.8%	7.0%	3.8%	4.3%	8.4%	8.4%	3.4%	3.0%
Target	5%	4.5%	5%	5%	4.5%	4.5%	4.5%	4%	4%

# [문인협회] 문학으로 만나는 세상 “문학의 도끼로 내 삶을 깨워라”

한국의 대표 여류시인, 문정희시인  
감성토크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벼락처럼 강물처럼 시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깨어난다”  
고독과 자유, 방황과 만남,  
감각에 대하여...  
모든 것을 흔들어 깨워라!  
오직 문정희 시인만이 낼 수 있는  
가슴 짙은 목소리!

일시 : 2016년 10월 11일(화) 오후 3시  
장소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SCBD소재 Equity Tower 17층  
JL. Sudirman Kav, 52-53 Jkt 12190  
주관 :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문의 : 문인협회 사무국  
Hp : 0812-817-8050 서미숙 회장  
0818-599-012 김성월 부회장  
0811-910-6697 이동균 작가

후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HanInPost**  
한인포스트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관계

조태영 대사는 9.14(수) 당지 외교정책분야 싱크 탱크 FPCI와 공동으로 자카르타 한국문화원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한 강연을 개최 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관계’ 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는 Dino Patti Djalal 전 인니 외교 차관을 비롯, 자카르타 근교 약 10여개 대학에서 총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 날 조 대사는 한반도의 정세 및 우리의 통일 정책 등에 대하여 강연하였고 참석한 대학생들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 강연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우리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에 관한 이해가 제고되는 계기가 됐길 희망한다.

### 리브몰 수공예품전시, 아름다운나눔 바자

2016년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22망리리브몰아뜨리움에서 재인니 한인회와 한인문예총 후원으로 한지공예,다종이인형, 십자수명화 및 소품들이 전시되어 많은 인도네시아인과 한인동포들의 시선을 끌었다. 한국공예품 및 도자기 바자의 수익은 아름다운나눔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예정이다.





## 21세기 한국 신발산업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주역 파크랜드

8월 8일 파크랜드월드 인도네시아(대표:신만기)에서 스마랑 쯔빠라 제 3공장 준공식이 있었다. 이날 준공식에는 파크랜드 한국본사 이병걸 회장을 비롯해 조태영 대사, 송창근 KOCHAM회장, 양영연 한인회장, 스마랑 부주지사, 광국민 파크랜드 부회장등 많은 협력업체 대표와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한 파크랜드 제 3사업부는 투자금액 약 1억2,000만 불의 투자로 31ha의 대지위에 20ha의 건물로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공장으로서 신발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년부터 월 200만 쪼크의 정상적인 생산을 할 것이며 향후 외주업체 5,000명을 포함 약 25,000명의 고용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7월 첫 삽을 뜬지 약 1년만에 31ha의 공장을 준공하게 된 것은 파크랜드 고유의 강력한 추진력과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신만기사장을 비롯해 많은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총력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재 파크랜드는 양적, 규모 외형면에서 인도네시아내 한국 기업중 가장 큰 기업으로 손 꼽히고 있다.

파크랜드 인도네시아 신만기 사장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누구도 할수 없었던 공장 자동화 시스템과 평생 신발인으로 살면서 체험하고 터득한 기술을 공장 구축구석 그의 노하우를 담아온 것이 2005년 출범한 회사가 10년만에 신발업계의 대들보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이로써 현재 파크랜드는 땅그랑 세랑의 1사업부 총 면적: 171,643㎡(건물 99,514㎡), 생산 라인: 50개 제조라인 (140만 쪼크/월), 종업원 수: 10,909명(한국관리자 22명)와 2 사업부 총면적: 136,288㎡(건물 61,217㎡), 생산 라인: 34개 제조라인 (70만쪼크/월), 종업원 수: 8,044명(한국관리자 16명)그리고 쯔빠라 3 사업부를 포함하면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으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매머드급 기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파크랜드 생산 제품으로는 아디다스와 뉴발란스를 생산한다.

현재 아디다스는 인도네시아 총 생산량 8천만 쪼크 중 약 25%인 2천1백만 쪼크(2016년) 생산을 하며 오는 2020년까지는 연간 4천3백만 쪼크의 생산을 할 계획이며 뉴발란스는 인도네시아 총 생산량 2천9백만 쪼크 중 약 30%인 6백5십만 쪼크를 생산하고 있다. 2018년 쯔빠라 제 3사업부의 정상이 되면 파크랜드는 1,2,3사업부 합계 연간 5천만 쪼크 이상의 생산을 하는 초대형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공장 자동화 라인 구축을 위해 신만기 사장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를 수없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왔었고 미국 뉴발란스를 벤치마킹해 결국 뉴발란스보다 앞선 자동화 기술을 구축했다.

파크랜드 경영 혁신사훈에 관심을 집중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훈이다.





- 이번에 준공한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로는
- 첫째, Material Flow Innovation
  - Dock to Dock system: 물류이송 용이를 위한 Deck 설치 (자재창고/제품창고)
  - Loading/Unloading 물류방식개선: 이동식 Conveyor, 물류운반Lift, 물류운반특수지게차
  - 물류대차정렬 보관방식
  - 자재세팅공간효율및물개암이방식의자재공급: 무인대차, 전동차
  - 수직창고개념도입공간효율화(재단물, 창, 롤자재, 몰드등)

둘째, Process Flow Innovation

- Mini-cell line 운용/자동화된장비통합화
- 공정별범용자동화(자동재단기, 컴퓨터재봉기)
- 공정별전용자동화(벨크로, 베라공정)

- 자동라벨기, 컴퓨터재봉기(베라끈고리), 베라뒤집기등)
- 제화접착공정: 지속적인자동화연구
- 효율지향적인, 기술집약적인기술: HECM, Injection Rubber 등셋째, Information Flow Innovation
- 생산집계자동화및PAC system 구축
- IoT 기술을통한설비관리: 컨베이어자동 temperature control
- Visual Display 로 첨단화되고 가장 이상적인 공장이다

현재 영업 현황을 보면 아디다스 런닝(Running) 카테고리 생산에 2016년 9월부터 런닝 5개모델 생산예정(총300만족 생산)이며 SS18부터 런닝 전략 프랜차이즈 Fluidcloud 독점개발 및 생산, 2017년부터 독립적인 런닝 개발센터를 운영하여 핵심 런닝모델 개발과 생산에 주력할 계획이며 아디다스 오리지날 라인 생산전환 및 확대를 실시하여 연간 생산량 6천 5백만 족으로 아디다스 전체의 30%를 확보하고 아디다스 주력 오리지날 카테고리의 생산 공장으로 향후 오더의 증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기사제공: 코파의 힘]



# 제1회 자카르타 한인합창단 연합합창제 'The Choir'



9월4일, 자카르타 한인 합창단 연합회가 주최하고 자카르타 극동방송이 주관하여 한인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회 자카르타 한인합창단 연합합창제 'The Choir' 가 우스마르 이스마일홀에서 개최됐다.

'The Choir' 는 합창문화 발전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연합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한인합창단이 함께 모여 준비한 합창 축제로 크레도 여성중창단, 자카르타 아버지양상블, 아르떼 여성합창단, 자카르타 극동방송 합창단 등 자카르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인합창단이 참여했다.

이 연주회에서 자카르타 아버지 양상블은 코믹한 퍼포먼스로 관객에게 웃음을 주었다. 또한 한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견연주자들로 구성된 실내악단 '서울 이무지치챔버' 가 특별출연해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감동을 선사했다.

조태영 대사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화음을 맞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과 같이, 한인 공동체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 며 한인 합창단에게 격려했다.

채영애 자카르타한인합창단 연합회장은 “우리 교민들이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한다.” 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자카르타를 넘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의 잔치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제 11회 자필묵연 정기 회원전 ‘새로운 시작’ 을 열었다



8월22일,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서예동호회 자필묵연의 ‘제 11회 정기전’ 이자 ‘제4회 (사)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 지회전’ 이다.

인재 손인식 선생 지도하에 필묵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모임인 자필묵연 32명의 회원들이 ‘새로운 시작’ 이란 주제로 한문, 한글 서예와 문인화 108점을 출품하여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전시를 했다.

‘새로운 시작’ 으로 자필묵연의 존재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 한결같이 달려온 십수년의 시간과 지난 열 번 전시의 의미를 되살려 한 단계 승화된 작품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시회이다. 이번 출품작들이 예술적으로 한결 깊어지고 개성이 뚜렷해진 작품들이 많아진 것은 노력한 시간과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다.

조태영 대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전시회 제명에는 지난 10년의 성취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포부와 다짐이 담겨 있다고 들었다.” 며 “저마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수련과 정진을 통해 큰 발전과



성취를 이룬 회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전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이번 전시회로 작품의 세계를 넓혀가듯, 인도네시아 서예동호회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서를 교류하며 인정이 넘치는 모범적인 한인단체로 새롭게 도약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제10회 정기전 기념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귀국 전 ‘적도의 묵향, 서울 나들이’ 를 열어 한국 서단과 다수의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바 있다.

# ‘제3대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이·취임식’



8월22일,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배연자) 플라빠가딩에 위치한 골든리프웨딩홀에서 ‘제3대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영 대사, 양영연 한인회장, 전민식 민주평통남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장 표창 및 공로상 수여, 이임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배회장은 1972년 대한민국 반공연맹 멸공 계몽지도요원으로 발탁되어 교육을 이수한 후에 대구 경북 일대에 반공 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배연자 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자유총연맹은 정치집단이 아니고 친목단체 또한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운동 단체로서 유엔에 NGO로 당당히 등재된 단체입니다. 62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한국자유총연맹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일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영 대사는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한인회 양영연회장은 “우리 동포 사회 통합과 자발적인 국민 참여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국가발전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유총연맹의 활동에 박수를 보내고 “한인들의 북한식당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이·취임식이 끝난 후 ‘제5차 북한 핵실험 규탄대회’를 가지며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핵 도발을 규탄했다.

## \*배연자회장과과의 미니 인터뷰\*

–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일수도 있지만 미려한 제가 막중한 중책을 잘 감당해 나갈지 두려움이드네요. 현상범 회장님의 빛나는 활동과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희를 넘긴 할머니지만 뜨거운 애국심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벽찬 직분을 멋지게 감당해 나 갈수 있게 용기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자랑스러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원한 내나라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큰일보다 작은 일을 챙겨가며 시작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임회장님과 함께 했었던 삼일절 행사, 6.25행사, 역사 도전왕 등 각종 행사를 더욱 활발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한빛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암에 걸린 인도네시아 어린이에게 의안을 시술하여 주었는데요. 이런 행사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 우리 청소년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청장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잊지 말고 남북이 분단된 국가가 바로 나의 조국이라는 생각을 깊이 새기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정은 정권의 제5차 핵실험 규탄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성명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또다시 핵 도발을 한 것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지난 3월2일 만장 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바,

우리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이번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한, 미, 일, 중, 러 및 동남아 국가연합(ASEAN) 등 18개국 정상들이 라오스에 모여, 핵군축과 비확산을 강조하고 북한에 안보리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특별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바로 다음날 제5차 핵 도발을 감행한 것은 모든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들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스스로 앞당기는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김정은 정권은 어떠한 도발과 만행과 위협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안보리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은 정권이 체제유지와 핵 개발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 조차 누리지 못한 채 굶주림과 탄압에 시달리고 있는바,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북한식당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식당 평양관의 출입을 자제하고 식당이 폐쇄되도록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6년 9월 22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민주평통동남아남부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세계한인무역협회인도네시아지회,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재인도네시아해병전우회, 재인도네시아한국봉제협의회, 재인도네시아신발협의회,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일동



# 코이카 인도네시아 홍수예방에 앞장서다. “안전한 찌다룸강 유역” 중간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인식)이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찌다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시스템 개발사업의 중간워크숍이 지난 9월 1일 반둥에서 개최 하였다. 본 행사에는 공공사업주택부, 찌다룸 유역관리청 등 여러 관련 정부관리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해마다 대형도시에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찌다룸강 유역의 홍수 피해면적은 8,000ha에 달한다. 이러한 심각한 홍수재난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과 범람을 예측하여 시민들에게 알려 대피경보를 알리는 등의 홍수 예경보시스템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코이카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찌다룸강 유역 홍수 예경보시스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인근 거주민들에게 홍수 발생 예측사실을 알려 선행시간 동안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찌다룸강 유역 반둥시 지역에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고 공공 및 민간의 막대한 자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주)유신엔지니어링과 토코넷(TOCONET)은 현재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MPWPH;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산하의 정부 수자원총국(DGWR; Directorate General of Water Resources)과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강 유역 수자원 경영 조직에는 찌다룸 유역관리청(BBWSC; Balai Wilayah Sungai Citarum)을 주축으로 PusAir와 PJT-II(Perum Jasa Tirta-II), 서자바 정부, BMKG, BPBD등이 참여하고 있다.

많은 정부 부처와 찌다룸강 유역 거주민들의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는 홍수재난을 감소하고 거주민과 찌다룸강 유역 지역사회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통합홍수관리를 위한 수자원총국과 찌다룸 유역관리청의 역량강화와 함께 한국에서의 연수초청교육과 기술교류등 양국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역동적인 경제성장 향상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 마따 꾸짱 (Mata Kucing)

작품해상도: 4914\*3264 px

### 수마트라 섬 크루이지역에 가면 다마르나무숲이 많다.

다마르나무는 심은 후 30년이 지나면 나무 아랫부분에 여러 개의 구멍을 판다. 구멍에 나무의 송진이 흘러내려 노랗고 투명한 송진덩어리가 된다. 이 모양이 고양이 눈처럼 생겼다하여 ‘마따 꾸짱 (mata kucing)이라 부른다. 송진을 채취하는 방법은 등나무줄기로 끈을 만들어 몸을 지탱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가며, 보통 2-3주에 한 번씩 송진을 채취한다.

송진의 품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며, 약 60%가 크루이에서 생산되며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송진은 페인트, 화장품, 유리, 머난(의식 할 때 피우는 향)등 이외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Krui, Sumatera Selatan

크루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신랑신부는 각각 10 그루’의 다마르나무를 심는다. 나무에 올라가서 따기만 해도 돈이 되는 다마르나무를 그들은 ‘황금나무 (pohon emas)’라고도 부른다. 숲이 울창해질수록 삶이 윤택하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숲을 잘 가꾸고, 더 좋은 숲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김성월/ 여행작가. 방송코디네이터  
hansol0508@daum.net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 새로 취임한

# 백우정 교장

지난 9월 1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2학기 개학식과 함께 백우정 교장 선생님의 취임식을 가졌다. 한인뉴스 편집팀은 9월 20일 백우정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를 위해 자카르타 한국학교를 방문했다.



“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1. 한국에서의 활동사항 (자기소개)

어린 시절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평생 누리고 싶어 교육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부터 지난 30여년 간 모든 것의 시작도 끝닿음도 교육이 아닌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대학원을 갔고, 교사를 지원하는 장학을 하고 싶어 장학사가 되고, 교육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교육정책 석·박사를 하고 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 교육부 교육연구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논문을 썼으며, 장학사 시절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모든 학년의 영어교수학습과정안과 학생용 workbook을 만들어 모든 영어교사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활용방법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 2. 자카르타에 오신 소감

편리한 쇼핑시설, 아파트 등 생각보다 많이 발전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현지인들의 밝은 표정과 친절함도 낯선 땅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심해 해결책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나 고가도로, 지하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3. JIKS의 첫인상

녹색 천연잔디와 수영장, 나래홀 등을 돌아보며 전임교장선생님들의 노고와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학 첫날 밝고 순수하고 예의 바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인 가정들이 많이 안정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거울이니까요. 특히 연대 18명, 고대 10명 등 12학년의 2017년 대입결과를 들으며 특례입학의 장점을 실감했습니다.

- 한국에서 온 초빙교사, 현지 채용교사, 영어와 인니 원어민 등 초·중·고 12학년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며 한국학교와는 다른 글로벌 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 4. 한국과 달리 초, 중, 고 12년을 연계하는 확장된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초중고 통합학교의 장점을 살려 연차적으로 학교급을 넘는 수준별 수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 개인별 격차가 크게 나는 영어나 인니 어, 수학부터 수준별로 수업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12단계로 나눌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수준이 7이라면 level 7 수업을 듣도록 하는 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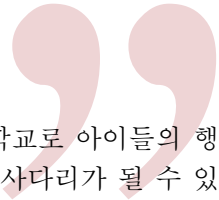
#### 5. JIKS만의 경쟁력을 위한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잘 알고,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글로벌 인재로서 동남아시아 무역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스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인니어·한국어를 동시 구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한국학교에 부여되는 특례입학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소질과 적성, 꿈을 발견하고 키워준다면 원하는 대학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동포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꽃의 향기는 십 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백 리를 가지만  
 교육의 향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은은하게 울려 퍼져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직스가 우리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우정 교장 약력소개

- 청주교대 졸업,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교육 석사, 교육정책 석·박사
- 충북교육청 초등교사, 장학사, 중장기발전계획팀장, 기획담당 장학관
- 교육부 교육연구원
- 청주교대,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주성대학교 등에서 몇 년간 강의했음
- 아동의 권리, 초등영어교육, 교육정책 관련 활동을 주로하고 논문을 씀
- 한국교육계 대표로 쿠웨이트 교육부, 사범대학, 교육청, 학교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함
- 외국과 MOU 체결 : 필리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 무임승차

차량들이 난폭하게 속력을 내는 도로에서 대형트럭과 컨테이너 로리들 틈에 끼어 능숙하게 지그재그로 차를 몰던 그는 강렬한 음악소리 사이에 간간히 들려오는 어떤 기묘한 소리가 신경 쓰여 카스테레오를 끄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고 있었어요. 있지도 않은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달리는 차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의 다이하추 페로자는 94년 형 투도어 째이었는데 이젠 자카르타 도로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구식 모델입니다. 당시에 도 새 차는 아니었지만 아기귀신이 붙을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고 별로 넓지 않은 공간을 한번 휩 둘러보는 것만으로 차 안을 떠돌아 다니는 도깨비불이 없다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아기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들려온 것일까요?

바야흐로 수하르토 정권의 철권독재를 무너뜨린 1998년 5월의 민주화운동과 엄청난 인명피해를 동반한 유혈폭동이 맹위를 떨치며 자카르타 전역을 초토화시킨 지 얼마 되지 않던 시절, 그가 북부 자카르타 소재 짜꿍 지역 주택단지인 따만모데른에 살 때였습니다. 수많은 원혼들이 떠돌아 다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였지만 자기 차에 귀신이 붙는 것만큼은 그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중부 자카르타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들 사이에서 떠돌던 귀신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운전사가 겪은 일인데 그가 일하던 집의 주인 가족들이 아마 술라웨이 어딘가에 크루즈 여행이라도 떠났던 모양이죠. 신세벽에 판중뿌리옥 페리 선착장까지 주인가족들을 데려다 주고 돌아오던 운전사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스름 속에 갑자기 나타난 일단의 사람들을 썸베르 갈래길에서 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졸음운전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차를 세우고 뛰어나가 보았을 때 도로에 널브러져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이었는데 말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착각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운전사는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차에 올랐는데 한참을 가다 차 안 룸미러에 이상한 것들이 비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자기가 치었던 사람들이 뒷좌석에 우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 보면 아무도 없지만 룸미러에만 비치는 그들은 핏기 없는 섬뜩한 얼굴을 하고서 운전사의 등 뒤로 손을 뻗쳐 어깨와 뒤통수를 잡아 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사고가 날 뻔하면서 간신히 아파트에 도착한 운전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차 안을 가리키며 경비원들에게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였어야 했는데 들을 당시엔 그 와중에도 차를 버리지 않고 끝내 목적지까지 가져온 대단한 운전사의 놀라운 책임감을 그는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일이 이제 벌어지려는 모양인데 그래도 도의적으로 이건 아니죠. 시간이 오전 10시를 막 지나고 있었어요. 비록 햇볕이 짹짹 내리쬐는 쾌청한 날씨는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귀신이 나와도 될 배경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꽤 귀에 익은 소리였습니다. 오래 전 그가 상무대 훈련을 마치고 처음 발령받은 전방부대는 군사분계선에서 2킬로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의 첫날 밤, 숙소 밖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그는 소름이 들었습니다. 민가가 가까이 있을 리 없는 전방부대에서, 그것도 철후 같은 한밤중에 잣난 아기가 버려

져 있을 리 만무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딘가 구슬뿜마져 느껴지는 그 울음소리가 방문 밖을 자꾸 어른거리기에 6.25 당시 격전지였던 그곳에서 당시 죽은 아기원혼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는 간단히 수궁해 버렸고 그러자 무서운 생각보다 측은한 느낌이 가슴 속에서 샘솟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황실에서 전임소대장이었던 이중위에게 그런 감회를 말하자 이중위는 삼키려던 커피를 스프레이처럼 내뿜으며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기 울음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고양이 울음소리라는 거였어요. 그의 부대 뒤쪽으로 펼쳐진 야산에는 야생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 그의 숙소가 PX 바로 옆이었으니 밤마다 고양이들이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며 울어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 턱도 없는 감상에 젖었다는 생각에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또 다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서, 귀신을 보더라도 절대 놀라지 않겠다는 각오로 문을 열어젖혔을 때 정말로 고양이 수십 마리가 영롱한 달빛 아래 숙소 앞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발정 난 고양이들이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히려 킁킁 않는 새끼고양이 같았습니다. 결국 차를 세우고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위치가 하필이면 판중뿌리옥 항구 앞. 유지보수 상태가 형편없는 도로변 좁은 보도를 따라 쪽 세워진 철조망 너머로 하늘을 찌를 듯 쌓여 있는 컨테이너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머리꼭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침시간이지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히 틀어 맨 그와 같은 외국인들이 함부로 차를 세우기엔 분명 적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을 위한 싸구려 선술집들과 클럽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그곳은 대형 차량들이 경주라도 하듯 쏘살같이 달리고 있었지만 인도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를 잣길에 세우고 차 밑을 여기저기 들여다 보는 사이 어느새 적잖은 남자들이 어디선가 스물스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무법지대로서 악명을 떨치던 판중쁘리옥은 자카르타 폭동 당시 비교적 피해가 경미했던 북부자카르타에서 유일하게 아수라장이 되었던 곳임을 기억해 내면서 그의 머리 속 경고등이 점멸하며 비상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공습경보, 공습경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새 등 뒤에 바짝 다가온 것을 발견한 그는 허겁지겁 차에 올라 시동도 걸기 전 우선 도어록부터 잠갔습니다. 무법지대에서 외국인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엑셀을 밟아 질주하는 대형차량들 사이로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아까 몇 번씩이나 들여다 보았던 차 밑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있었다라도 차를 세웠을 때 이미 뛰어 내렸을 테죠. 그래도 또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정말 귀신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톨게이트 입구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이미 한 차례 엄청나게 쏟아 부은 빗물이 아직 곳곳에 고여있던 도로의 경사진 부분엔 폭우가 쏟아지자 금세 급류가 휘몰아쳤습니다. 차량 지붕을 때리는 세찬 빗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였는데 그 소리를 뚫고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짜왕 방면으로 돌 위를 한참 달리던 때였습니다.

차를 세울 마땅한 장소를 찾기 힘든 고가고속도로에서 계속 뒤따라 다니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 울음소리가 맞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그러니 이성적으로도 그렇게 추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닛을 열어보면 뭔가 중요한 부품이 통째로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듽성듬성 빈 공간이 많은 페로자 째엔 정차 중일 땐 고양이 일개 중대가 들어가 놀아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을 달려와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이나 복잡한 배관 틈에 굳세게 매달려 올 만한 수퍼 고양이가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 소리는 보닛 쪽이 아니라 차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그쪽에 있는 것들은 차동축과 속업소비 등 고양이가 끼거나 걸리면 치명적인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속 80km 넘게 달리는 차 안으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지금 그 뒤쪽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있는 고양이가 꼼짝 못하게 끼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끼이지 않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아까 판중쁘리옥 앞길이나 그 전에 차를 세웠던 KBN 공단의 봉제공장 앞에서 벌써 뛰어 내렸어야 했습니다.

고양이가 아직 죽지 않은 게 틀림없으니 이제 그는 도로 한 가운데서라도 차를 세우고 그 놈을 꺼내 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가 그의 일말의 양심을 귀찮다는 감정과 타협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대형차량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에서 차 폭의 반도 안되는 갭길에 차를 세우고 뭔가 작업을 하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뽀꼬란의 사무실까지는 이미 반쯤 달려온 상황. 이제 꺼내 주더라도 고양이는 어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어찌면 이미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와이퍼 사이로 전방을 바라보는 그의 눈 앞엔 바퀴 어딘가에 꼬리나 뒷다리가 끼어 바퀴가 한번 돌 때마다 휘둘러져 아스팔트 바닥에 있는 힘껏 머리를 내다 쫓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자꾸 어른거렸습니다. 이제 도로에서든 사무실건물 주차장에서든 차를 세운 후 그렇게 너털너털해진 고양이 시체를 차 바퀴나 회전축 어딘가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고 어찌면 그는 차 밑 어딘가에 미처 수습하지 못한 고양이의 신체 일부를 매단 채 한동안 자카르타를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끔찍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계속 들려오는 울음소리로 박서는 그 정도까지 처절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나 그가 아는 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차 밑 그쪽으로는 고양이가 올라타거나 매달릴 안전한 공간이 절대 없었고 그런 환경에서 무사히 살아 남을 수 있는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날 아침 그가 집을 나갈 때 한 무리의 고양이들이 집 앞 골목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마고양이와 네 마리의 새끼 고양이들이었는데 그 전부터 종종 눈에 띄던 녀석들이었습니다. 새끼들은 그날 아침 집 앞 골목 일대의 쓰레기통들을 뒤지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는데 엄마고양이는 천방지축인 애들 때문에 잔뜩 화라도 났는지 비어있던 옆집 차고로 기어들다가, 자길 보고 있었다는 죄밖에 없는 그에게 콧등에 주름을 잔뜩 잡고 송곳니를 드러내며 마치 압력밥솥에서 수증기가 빠지는 듯한 쉬-익 하는 소리로 독기를 뿜으면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사실 엄마고양이는 언젠가부터 그를 보기만 하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 네 마리 새끼들은 그가 차에 시동을 걸 때까지도 차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생선조각을 놓고 추격전을 벌였는데 지금 저 밑 어딘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녀석은 어쩌다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그 중 한 마리일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생판 모르는 녀석도 아니고 평소 알고 지내던 놈이라니 그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그 녀석들이 주택단지 수영장 입구 화단에서 태어난 것이 대충 3개월쯤 전의 일이었고 그때 엄마고양이의 배 밑으로 파고들며 젖을 빨던 손바닥 1/3만한 크기의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영장에서 그 녀석들을 들여다 볼 때 평소 성질 더러운 어미도 그때만은 출산에 힘을 다했는지 별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새끼고양이를 안아보아도 송곳니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화단에 고양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 사람은 수영장 관리인이었는데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으로 흥측하게 잘리거나 부러지고 휘어진 꼬리를 한 고양이들이 대부분인 자카르타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여유가 전혀 없었을 수영장

관리인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고양이들을 보살펴 주는 것은 사뭇 의외였습니다.

“저것들도 알라가 주신 생명인데 그냥 버려둘 수는 없죠. 하지만 당분간이에요. 이제 새끼들이 눈 뜨고 뛰어다니게 되면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나갈 거예요.”

관리인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들이 눈을 뜨자 화단의 보금자리는 비어있기 일쑤였고 고양이들은 온동네를 싸돌아다니며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매일 그의 눈에 띄었는데 대체로 흰색 털이 수북한 엄마고양이와 달리 새끼들은 누런 줄무늬 두 마리와 검정 줄무늬 두 마리였습니다. 주택단지에 서식하는 많은 길고양



이들 중 그들이 특히 눈에 띈 것은 검정 줄무늬 중 한 마리가 다른 형제들 반 밖에 안되는 덩치의 발육부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녀석은 덩치 큰 형제들 사이에게 전혀 기죽지 않고 쫓아다니며 위험할 정도의 장난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귀여워 그는 일찍 퇴근할 때면 일부러 사료며 통조림도 사와 차고 앞에 고양이 밥상을 차려놓기도 했는데 오늘 그들 중 한 마리가 그의 차 밑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꼭 이루고 싶었던 꿈



최우호 (BINUS UNIVERSITY 학생)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중석광산이 유명했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에서 자랐다.

교과서에 나올 만큼 한 때 제 2의 명동으로 불리며 1980년대 외화벌이의 선봉장이었던 그곳은 값싼 중국산 중석에 밀려 대한중석이 폐광되고 난 후 너무도 보잘 것 없는 폐광촌으로 전락했다.

4만 명이 웅기중기 모여 살았던 시가지는 옛 영광을 뒤로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상동읍을 다른 폐광지역보다 더 불쌍하고 못사는 동네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면 도시에서 의료봉사를 비롯한 많은 봉사자들이 우리 동네를 찾았다. 도시에서 멋지고 예쁜 대학생 형, 누나들과 좋은 차를 타고 온 의사선생님들이 맛있는 것을 나눠주고 함께 음악교실, 미술교실, 과학교실 등 재밌는 학습을 하며 보내는 3~4일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을 배웅하는 우리의 눈에는 아쉬움의 눈물이 고였다. 그 후 나와 친구들의 장래희망은 축구선수가 아닌 대학생,

의사, 그리고 간호사가 되었다. 나도 저분들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느낀 감정을 전해주고 꿈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이곳 인도네시아 땅에서 내 다짐의 첫걸음을 떼게 해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준 파푸아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사실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외국까지 가서 못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파푸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이었다. 파푸아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5시간 가야하는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

Dari Sabang sampai Merauke라는 말이 있다. 인도네시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라는 말인데 그 거리가 한국에서 자카르타에 오는 거리와 맞먹는 5100KM에 달한다. 우리가 간 곳이 바로 동쪽 끝 머라우케의 울릴린 지역이었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7시간, 차로 5시간 비포장도로를 달려 꼬박 12시간이 걸렸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토색 길,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확 트인 시야가 장관을 이뤘다. 머라우케의 명물인 2M 이상 치솟은 개미굴이 곳곳에 보이고 손에 잡힐 것 같이 가깝게 느껴지는 환상적인 석양이 파푸아에 온 우리를 환영하듯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우리는 격한 환영을 받으며 쉽게 갈 수 없다는 파푸아 머라우케에 발을 들여 놓았다.

파푸아에 사는 부족들의 생김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다른 부족들과 많이 다르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연상케 하는 흑색피부와 곱슬머리는 인도네시아 곳곳을 다녀본 내게도 생소했다. 대체적으로 얼굴이 작고, 코는 높고 뾰족하며 다리가 굉장히 길었다. 그리고 토속 신앙 때문에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치아를 까맣게 물들였다.

성격은 꽤나 전투적이다. 실제로 처음 이곳을 개

발할 당시 많은 부족들이 전사복장을 하고 칼과 활을 차고 나와 활을 쏘아대며 외부인의 출입을 격렬하게 막았었다고 한다. 아직도 이 곳 남자들은 전투본능이 강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남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전사복장을 갖추고 상대방을 찾아가 전투를 신청하고 칼부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팜나무 농장을 운영하는 한국의 한 현지법인이 세운 초등학교에서 미술수업 통역을 맡아 3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장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서로 밀치며 물어뜯고 있었다. 조금의 위화감을 느끼며 들어선 교실의 분위기는 담임선생님의 한마디에 좀 전과 달리 매우 정숙해졌다.

또랑또랑한 눈동자로 낮선 외지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신기함과 기대감, 부끄러움 등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 했다. 나 또한 저랬었겠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며 준비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나눠줬다. 그리고 꽃과 나무 등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나눠준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각각의 가방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더니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새로 생긴 물품들이 아까워서 쓰지 못 하겠다. 크레파스를 처음 써보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레파스로 몇 번 선을 그어보더니 아까워서 그런 건지 너무 곱아서





어색한 건지 자꾸 익숙한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내 얼굴에 열린 미소가 번졌다.

3학년이지만 수업을 기르고 어른의 모습을 한 친구들도 몇몇 보였다. 학교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입학할 때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을 1학년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3학년인데 또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다. 이곳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너무 없어서 좋아하는 것을 그리라고 하면 30명이 넘는 친구들 모두 나무, 꽃, 집이 고작이다. 장래희망도 남자는 군인, 여자는 선생님이다.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다.

고학년들은 물감과 팔레트를 처음 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저학년들은 풍선하나에 마냥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느끼는 뿌듯함을 나도 느끼고,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까지 즐거워진다. 다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졸업 후 진학할 중학교가 없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멍멍하게 만들었다.

이 학교는 제법 거리가 먼 곳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오전 11시에 끝났다. 그 후 의료봉사를 진행 했는데 내가 맡은 부분은 학교 옆에서 운영 중인 클리닉의 의사선생님과 함께 주민들의 혈액

형, 알레르기, 흡연여부, 음주여부, 현재 아픈 곳을 확인해서 진료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구비된 약을 나눠 주는 것이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혈액형을 모르고, 계란, 생선, 면 종류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곳은 물이 귀해서 자주 씻지 못하고 옷을 빨지 못해서 피부병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많다. 클리닉에서 혈액형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문제 때문이고, 주민들이 피부병으로 클리닉을 찾으면 의사선생님이 계란, 생선, 면 종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피부병을 알레르기로 착각하고 있었다. 몇 시간정도 밖에 있던 나도 손등으로 얼굴에 난 땀을 훔쳤더니 서걱거리는 느낌과 함께 황토색 먼지가 눈에 보일만큼 많이 묻어 나오는데 마스크도 없이 하루 종일 황톳길을 뛰어다니며 자동차 콩무니를 따라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됐다. 가끔 14~15세의 꼬마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찾아올 때면 비슷한 또래의 친척 동생들이 생각나며 가슴이 멍멍하기도 하고, 온몸에 금불이를 주렁주렁하고 찾아온 회사 간부급 인사의 아내를 보며 놀라기도 했다.



3일간 800명이 넘는 주민의 건강 상담을 하고 200여명의 아이들과 미술교실을 진행하며 13살이 되도록 물감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과, 제 손으로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수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해외봉사에 대해 부정적이던 내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문서 이해 능력은 세계 최하위일 지언즉 문맹률은 1% 미만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이곳은 말로만 듣던 한국 전쟁 직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봉사활동은 내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같은 방을 찼던 선생님과 숙소 옆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봉사활동 피드백을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후두두둑’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맞춰 형광색 불빛들이 수 없이 날아오르기 시작한다. “반딧불이다” 라는 말을 읊조리며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고향에서 봤던 그 풍경이 떠올랐다. 문득 이곳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곳만의 행복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걸 인지했다.

지금까지 나왔던 대화 속의 안타까움, 아쉬움을 모두 버리고 뿌듯함만 갖고 내 자리로 돌아가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다. 요즘 수많은 일들로 지쳐 있던 나였지만 그날만큼은 고향 마을에서 꿈을 키웠던 3학년 최우호 어린이의 동심으로 돌아가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 2016 반등 한인 체육대회



글: 배한나(gkssk0086@naver.com)

맑게 개인 하늘을 자랑하던 지난 9월 10일 토요일 'UPI 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반등 한인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아이들의 체육대회 3부 어른들의 체육대회와 마지막 4부 어울림 마당 총 4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반등 지역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인 관련기관, 한글학교, 다문화가정 등 모든 이들을 초청하여 함께 웃고, 뛰고,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날의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AM9:30분

여기저기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운동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통칭 '한사모'의 트로트 공연이 진행되며 사람들의 흥을 북돋움과 동시에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던 산뜻한 시작이었다. 공연 직후, 곧 바로 1부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반등 한인회 엄정호 회장은 "함께 협력하며 사랑을 나누는 반등 한인회로 나아가자"며 개회사를 알렸고 재인니 한인회장 양영연회장을 대신하여 참

석한 박귀인 사장은 "반등 한인회가 모든 한인회의 모범이 되고 있듯, 한인 동포와 인도네시아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연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등 한인회 최이섭고문은 "가장 화합이 잘되는 한인회, 서로 돕는 한인회가 되어가자"며 격려사로 마무리 지었다. 1부 기념식은 모두가 화합과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AM10:10분

빠르게 이어진 2부는 아이들의 체육대회. 2부 체육대회는 한인회 소속 한글학교가 주관한 것으로 자그마한 미니운동회와 같았다. 한글학교 교감인 고혜숙선생님의 간단한 한글학교 소개와.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또박또박 말하던 최예랑(11) 서여준(9) 학생의 선서. 제일 먼저 진행된 경기는 아이들 모두가 개인전으로 참여한 50m 달리기.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시작된 달리기는 아이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경기장을 활기차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스탠드에 앉아 내 아이들을 응원하던 학부모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3부 어른들의 체육대회가 시작된 것이다.

PM12:00

청기와, 강남스타일, 한국관, 본가, 원조, 마지막으로 뉴캐슬까지 각각의 한인 식당에서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푸짐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도착했다. 게다가 성큼 다가온 민족대명절 추석을 위해 자카르타에서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송편까지 맛볼 수 있던 너무나도 행복한 식사시간 이었다.

즐거운 식사에는 절대 빠져선 안될, 축하 공연도 함께 진행 되었다. ‘한사모’의 즐거운 B-boy 댄스와 한류열풍의 주역인 K-pop 메들리가 연달아 이어지며 보다 더 즐거운 오감을 만족할 수 있었다.

PM1:00

우리 아이들의 경기도 보았고 배불리 밥도 먹었겠다, 이젠 우리 어른들이 나설 차례였다. 호쾌한 연속골이 이어지던 남자 축구의 우승은 홍팀.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리던 여자 피구의 우승은 청팀에게로 돌아갔다. 이어진 경기는 아이들과 함께 한 박터트리기와 줄다리기. 무려 맨 손으로 진행된 줄다리기는 젊은 청년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른들까지 너도나도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금니 딱 깨물며 안간힘을 쓰던 경기였다. 너무나도 웃기던 하지만 절대로 웃을 수 없던 인상 깊은 경기



였다. 줄다리기 우승팀은 청팀에게로 돌아갔다. 3부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기는 평균나이 40살 이상의 400m 계주 달리기. 2부 아이들의 400m 계주가 너무나도 귀여웠다면 3부 어른들의 400m 계주는 진심 100%로 손에 땀을 쥐게 하던 역전의 역전경기였다. 어느 팀이 이길지 알 수 없었던 숨막히던 경기였다. 3부 어른들의 경기는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 직장에서의 서러운 아빠들과 살림과 육아에 지친 엄마들의 스트레스 풀이가 되었던 너무나도 유쾌 상쾌 통쾌하던 시간이었다.

PM3:00

마지막으로 진행된 4부는 어울림마당. 아침 일찍 시작된 오늘의 체육대회는 갑작스런 빗줄기도 그 혼한 부상자 하나 없이 행운권추첨과 폐회식으로 오후 5시에 끝이 났다.

사각지대에 몰려 늘 소외 되어온 다문화 가정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모범과 희망이 되자던 반동 한인회. 한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길 위해 기획했다는 취지에 걸 맞게 오늘의 체육대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오늘의 행사를 위해 누구보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뜨겁던 태양 아래에서 하루 종일 직접 발로 뛰며 애쓰고 힘 써주신 우리 한인회 임원들과 한글 학교 선생님들께 큰 존경과 영광 커다란 박수를 부탁 드린다.



# 제1회 한인 청년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UI와 UPH 재학생인 한인 대학생들의 단합 체육대회가 JIKS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UI (학생회장 한상인)와 UPH

(학생회장 김가람) 한인 대학생들과 재인니한인청년회 임원진 들 60여명이 모여 3인4각, 짝피구, 왕피구, 팔씨름,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닭싸움, 인간 윷놀이, 꼬리물기, 경보계주 등 청백팀으로 나눠 땀을 흘렸다.

재인니한인회 (회장 양영연), 재인니한인청년회 (회장 김종현)와 KOTRA(부관장 염승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추석을 맞이하여 대학생들의 단합과 교류를 장려하고 청년과 차세대 멘토링 취지에서 마련됐다.



재인니한인청년회 김종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 같이 단합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되 부상 없는 친선경기를 바란다.” 며 20대 대학생들과 30, 40대 한인청년회 임원진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대회는 UI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백팀이 UPH 대학생들이 주축인 청팀을 꺾고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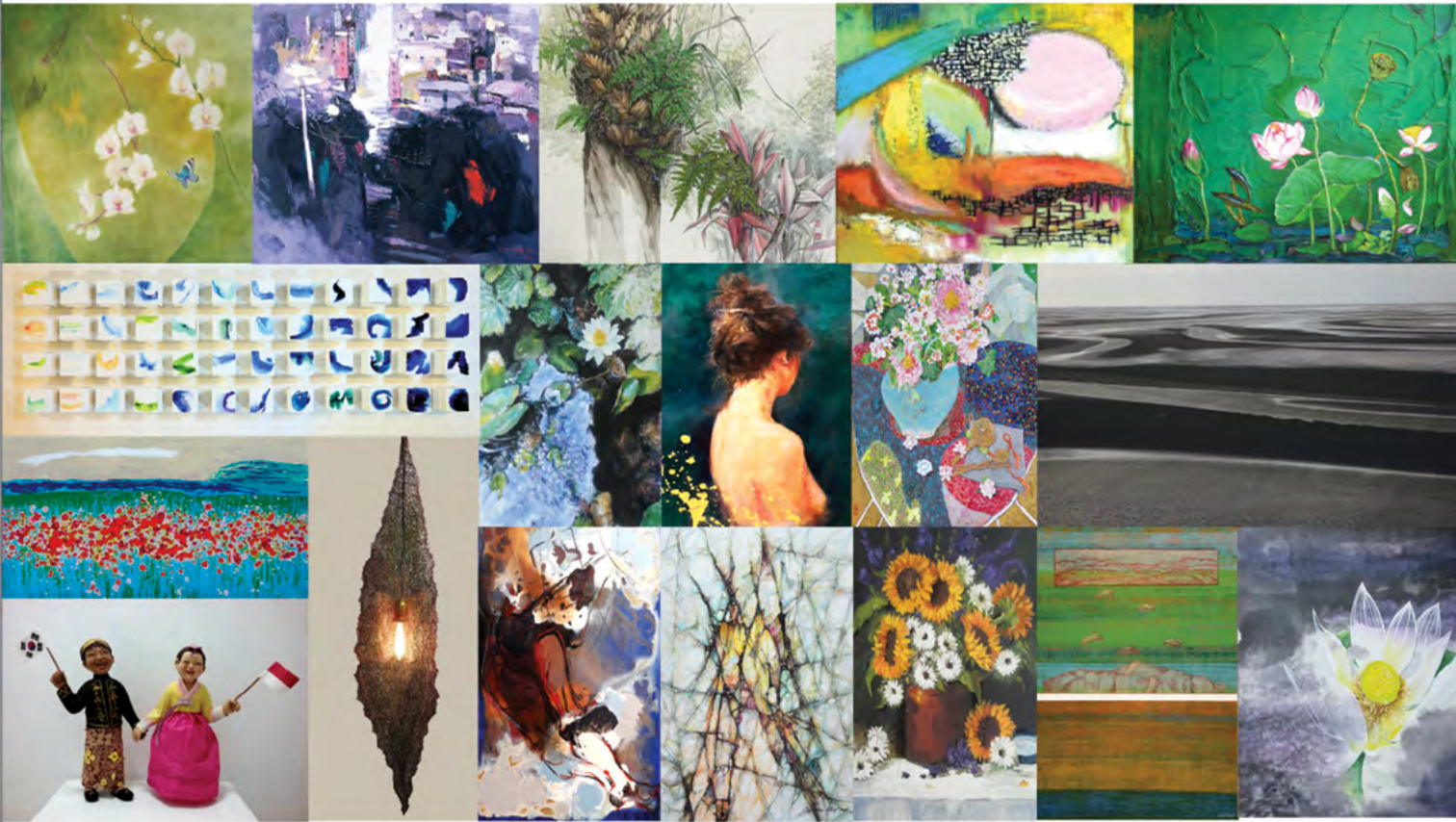
각 팀에서 남녀 1명씩 선발된 MVP에게는 재인니한인청년회 장윤수 고문이 후원한 땀기머리 세트 상품이 수여됐다.



제17회

# 인도네시아한인미협전

Exhibition of Korean Art Association 2016



2016. 10. 20(목) ~ 25(화)  
(Opening Thu.10.20 PM 5:00)

Korean Cultural Center  
Equity Tower 17 Floor, SCBD, Lot 9  
J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T. (62-21) 2903-5650

한인미술협회

# 인도네시아 맛집도 스마트하게 찾기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 Zomato VS Graved

이번 달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맛집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인도네시아는 말도 다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제한적이라 맛있는 집을 찾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뭐 맛있는 것 먹으러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저와 함께 더 스마트하게 다양한 맛집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시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인도네시아 맛집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한국처럼 블로거들이 네이버에 거의 다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Trip Advisor 정도를 제외하면 특별히 맛집 정보를 모아둔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몇 년 전까지는 구글링(구글을 통한 정보검색)을 통해서 곳곳에 있는 현지 블로거 또는 여행 블로거의 글을 참조하고, 잡지에 나오는 맛집 정보를 스크랩하고, 맛집 정보를 모아둔 책을 구매해서 맛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맛집을 찾으러 매번 잡지를 확인할 필요도, 어렵게 구글 검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식당의 위치와 지도, 메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용자들의 평점과 평가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편리한 APP이 있습니다. 바로 Zomato와 Graved입니다.

두 APP모두 앱스토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두 APP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Zomato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인 맛집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Zomato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미국의 Yelp나 Opentable과 비슷한 모델인데, 인도네시아가 아닌 인도 회사입니다.

제법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불리우는 회사지요. Zomato의 특이점은 보통 식당 정보 서비스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올리는 정보에만 의존을 하는데 반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메뉴와 가격, 식당 사진을 Zomato의 직원들이 직접 식당을 돌면서 찍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Yelp평점이 식당의 매출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Yelp 평점이 0.1점 떨어져서 해고당한 식당 매니저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Zomato의 경우에는 Yelp가 진출하지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Zomato는 브라질, 터키,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서비스를 하는 국가입니다.



Zomato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Zomato의 슬로건은 “Never have a bad meal” 입니다. 시간대별(예: 아침, 점심, 카페, 저녁, 바)로 어울리는 식당을 추천해 주고, 키워드를 사용하는 검색과 근처 음식점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테마별로 추천 음식점을 분류해 두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고객 친화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합니다. 맛집 APP을 열었을 때, 고객이 하게 될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해서 메인 화면에 필요한 사항들을 깔끔하게 노출해 두어, 고객이 APP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식당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식당의 평점과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의 서비스의 경우에는 평점이 있을 경우 이 평점을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특이하게도 Zomato의 경우 상당히 평점이 정확한 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인지, Zomato의 평점 관리 모듈이 잘 되어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힘들어도, 제법 정확한 평점과 객관적인 리뷰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점이 높더라도, 리뷰는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세 페이지 내에는 식당으로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Call 버튼과 식당을 저장해 둘 수 있는 북마크 기능, 구글맵과 연동해서 바로 식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Qraved는 Qraved만의 색깔이 있는 서비스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Qraved는인도네시아 회사로 최근 시리즈B를 유치하면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나름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raved의 서비스를 보면 한국에서의 맛집 서비스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당정보와 메뉴 등의 다양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Qraved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별, 음식별, 지역별 다양한 추천 식당을 정리해 둔 콘텐츠입니다. ‘반동에서 가 볼만한 카페’, ‘일본 우동을 가장 잘하는 식당’ 뭐 이런 분류 별 추천에서 ‘헤어진 다음 날 연인을 찾기 위해 가야할 식당’ 이라는 감성적인 제목의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류방법으로 식당과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다음 날 연인을 찾기 위해 가야할 식당에는 깜짝 놀랍게도 저희도 자주 이용하는 한국식당 한 곳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더군요.

한인뉴스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Zomato와 Qraved로 검색해서 멋진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외식을 혹은 연인과 함께 오붓한 데이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학생기자 JIS 정주은)



대화와 소통 결여는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 결여는 가정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의 유입으로 인해 빚어졌다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더 큰 요인은 대화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대화란 날 때부터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올바르게 못한 대화를 하다가 말 다툼으로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서 10대들이 어떻게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솔직해져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진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 부모님 또한 예외는 아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실지라도 자식의 생각을 읽어내는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다.

## 2. 예의를 지켜라

솔직해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익숙함에 속아 부모님에게 기본적인 예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 선생님께는 항상 예를 갖추면서 부모님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예의 없게 대꾸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따라서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기 이전에 한 사회에서 한 어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만 해도 부모님에게 언성을 높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 3. 경청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은 부모님께 예를 지키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부모님의 말씀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충족을 못 하고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무한대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상대방의 말을 대화 중에 끊는다면 해결책을 찾지 못 한채 자신의 의견만 말하다가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싸움으로 대화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길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 받기를 원하는 태도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 4. 언성을 높이지 말아라

아무리 의견이 대립될지라도 절대 언성을 높이면 안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먼저 언성을 높이면서 짜증을 내는 것은 부모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님 또한 언성을 높이면서 대응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따라서 절대로 먼저 언성을 높여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게 만들지 말아라. 또한 부모님이 언성을 먼저 높이더라도 참아라. 한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참는다면 적어도 대화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진다.

### 5.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꺼려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신을 질책하고 잔소리만 한다고 생각해서이다. 물론 그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정말 진부하게 들릴지라도,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잔소리를 해가면서라도 당신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까. 비록 받아들이기에 쓴 말일지라도 자신을 염려해서 하는 말임을 기억하고 ‘엄마/아빠가 왜?!’라고 대들기 보다는 ‘엄마/아빠 저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주세요’라고 부모님의 말씀에 현명하게 대처하였으면 좋겠다.

앞서 말한 올바른 대화를 하는 방법들은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싫으면 남도 싫다’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한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를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히 부모님들께 말씀을 올리자면 앞서 말한 다섯가지 방법들은 자녀들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다. 자녀가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한다면 부모님 또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마냥 아기 같은 자식일지라도 그들 또한 고민 끝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가 언성을 높이지 않고자 노력한다면 부모님 또한 자녀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녀도 사람이기에 날이 샷은 말에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부모님들과 자녀들 모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명사초청 강연회>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왜 인도네시아인가? 초청강사 : 양승윤

2016년 10월 29일 10시~12시30분

헤리티지 도서관(플라자 스나얀 Sentral Senayan I, 17F)

주최: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아انش션

후원: 한국 문화원, 한인 문예총, 재인니 한인회

### 제7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공모전 수상자와 수상작

상명	일반부		상명	학생부	
	이름	제목		이름	제목
대상 주인니 한국대사상	장소명 KOICA ODA 청년인턴	까리다답의 어린이(시)	대상 주ASEAN 대사상	홍예진 JIKS 11학년	양끝롱(시)
최우수상 재인니 한인회장상	이연주 주부	커피 검은 향기에 취하다	최우수상 재인니상공 회의소회장상	박준우 JIKS 11학년	하지만, 마깐안 인도네시아
우수상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장상	서정란 주부	바람과 해, 고집과 도움	우수상 KOICA 소장상	김혜지 JIS 12학년	인도네시아를 살다
우수상 재인니 문예총상	서윤배 단국대학교 문창과3학년	그해. 해무	우수상 한*인니 문화연구원장상	오하영 AIS 10학년	나의 국제학교 체험기
특별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윤현이 강원체육고국 어과교사	나는 자카르타 의 '잘란족' 이었지	특별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박미소 JIKS 8학년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움
특별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최미리	잘란 수라바야(시)	특별상 인도네시아 예술가상	박은수 BIS 10학년	나의 또 다른 고향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박지현 한국문화산업 교류재단 주임	반동의 세계성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김리브가 JIKS 11학년	밀림의 마지막 수호자 오랑우탄
	윤승옥 성신 인도네시아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자유, 까리문자와		이현주 JIKS 11학년	두려움이 사랑으로



# 2016년 9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KSPI, 29일 전국 20개주 150개 시군에서 시위

인도네시아 노총(KSPI)을 필두로 한 전국의 노동연합 및 단체들이 오는 29일 전국 20개주 150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사이드 이끄발 KSPI 위원장(사진)은 19일 “오는 29일 시위는 조세사면법 및 노동자 임금에 대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갖게 하는 조세사면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 법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다” 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현행 임금 규정 또한 사용자들 입장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값싼 임금으로 고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동자들은 2017년 월 최저임금을 65만 루피아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데이터에 따른 것으로,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

해 더 적다” 고 설명하며 “아시아개발은행도 아시아에서 가장 임금이 적은 나라로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를 꼽았다. 현재 적용되는 임금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노동 시위는 자카르타에서는 헌법재판소, 대통령궁, 대법원, KPK 청사(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열리며 약 1만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시위는 각 주 단위에서 주청사 앞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국영 안파라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위가 확정된 지역은 자카르타, 반둥주,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아제, 북부수마트라, 리아우체도주와 바탐, 람땡, 북부술라웨시, 남부술라웨시, 고론팔로, 서부술라웨시, 남부갈리만탄, 서부갈리만탄, 남부수마트라 등이다.

## 4세 아이 아파트 추락사, 다른 아파트는 안전한가

현지인들이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4세 아이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토요일 루수나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아이가 세탁실 창문에서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원인은 세탁실의 낮은 난간이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자카르타 저소득층 아파트에는 난간이나 엘레베이트 등의 안전 시설이 허술한 경우가 많으며 자카르타 주정부가 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바수끼 자카르타 주지사는 관리국에 아파트 안전시설 점검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1년 간 찰르곤서 HIV-AIDS로 111명 사망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반 뜰주 찰르곤 시에서만 111명의 주민들이 HIV와 AIDS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찰르곤시의 아리아드나 보건국장은 6일 현지 언론 안따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찰르곤시의 HIV, AIDS 발병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523건의 새로운 HIV, AIDS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355명이 HIV, 168명이 AIDS 환자였다” 고 밝혔다.

HIV, AIDS 감염환자 증가는 자유로운 성관계, 마약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감염, 수혈을 통한 감염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아리아드나 보건국장은 “최근 일반 가정주부도 HIV나 AIDS에 걸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남편이 다른 곳에서 감염자와 성관계를 맺어 감염된 뒤 부인에게 옮긴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찰르곤시 보건당국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에이즈 감염에 관한 예방홍보 캠페인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 끄망 빌리지 개발사 리보 까라와찌 “홍수 대비책은…”

지난 27일 폭우로 대규모 홍수를 경험한 남부 자카르타 끄망의 고급 주거단지 끄망빌리지를 개발한 개발사 리보 까라와찌(PT Lippo Karawaci)가 리보 끄망 쇼핑몰 주변 홍수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끄망 빌리지를 개발한 리보 까라와찌의 코넬리아 룯노 수야르자띠 배수 담당 헤드는 1일 “1.8헥타르 규모의 저류 연못(retention pond, 총 수용량 10만 큐빅미터)이 이미 마련돼 있다. 또한, 홍수 대비를 위해 펌프 등도 마련했다” 며 사측의 홍수 대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물난리를 겪은 끄망 주민들과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는 리보 까라와찌가 만든 저류 연못은 홍수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수끼 주지사는 끄루꿏 강폭을 넓히는 등 강을 정상화하고, 저류 연못이 아닌 저수지와 댐(waduk)을 건설해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수끼 주지사는 강 주변 토지를 매입해, 강폭을 20미터까지 넓히는 치수 사업에 나서겠다 밝혔다. 그러나 토지 수용 예산은 내년에야 마련될 전망이다.

끄망 입구인 안따사리 대로에서 끄망 라야 대로로 진입할 때 보게 되는 하얀 다리 아래를 흐르는 강물이 바로 이번 홍수 때 범람한 끄루꿏 강이다.

강폭은 예전에는 20~25미터 정도였지만, 가옥들이 강가에 축조되며 현재는 약 5미터 정도로 급격히 좁아졌다.

한편 27일 폭우로 끄망 지역에 있는 그리야 뿌라빠짜 아파트의 맞은편에는 갑자기 범람한 강물에 따라 수압을 견디지 못한 강 둑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자카르타주 수도국은 28일 아침 복구공사를 시작해 높이 2미터의 벽을 쌓고, 강폭을 넓이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메단서 28일 자살폭탄테러 시도...카톨릭 성당 목표

28일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요셉 가톨릭 성당에 출동한 대테러부대 대원들이 경계태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수마트라 메단의 만수르 대로에 위치한 산또 요셉 가톨릭 성당에서 자살 폭탄테러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니셜 IAH(18)인 남성은 이날 자살폭탄테러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부상을 입은 채로 북부수마트라 경찰 당국에 붙잡혔다.

목격자들은 성당 미사가 시작되려고 했을 때, 갑자기 용의자가 강단으로 향하더니 칼을 꺼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용의자는 큰 배낭을 매고 있었으며 갑자기 가방에서 불이 나더니 용의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증언했다. 또, 불이 나자 현장에 있던 신도들이 용의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용의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폭탄이 터지지 않자, 흥기로 미사를 집전하던 신부를 공격하려다 신도들에게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들은 용의자의 소지품 등에서 IS로고를 봤다고도 진술했다.

다행히 이날 용의자를 제외한 일반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용의자의 가방 속에 있던 폭탄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가방에는 폭탄, 칼, 도끼 등 흉기들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조세특사 신청한 인니인 은행 거래 내역 싱가포르 경찰에 보고?

로이터 통신은 15일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가 조세 사면을 신청한 인도네시아인 고객 정보를 경찰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스리 몰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6일 싱가포르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은 보도에서 싱가포르 경찰과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이 지난해 자국 은행에 대해 조세 특사를 이용한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이 돈세탁 등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하고 있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거래 내역에 대해 싱가포르 경찰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로부터 의심 거래 보고(STR)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리 재무 장관은 15일 밤 서둘러 회견을 열고 “싱가포르 부총리와 직접 확인하고 있다” 고 밝혔다.

스리 재무 장관은 “조세 특사를 활용한 내역 가

운데 범죄 행위로 드러난 사례는 없다. 조세특사 이용자는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고 강조했다.

스리 재무 장관과 뿌라모노 아농 내무장관은 16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회견을 열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양국 정부가 함께 논의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세특사법 시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기는 힘들다” 고 설명하며 “조사결과, 싱가포르 당국에서 자국 내 영업하는 은행들이 싱가포르 경찰에 의심 거래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인 자산 약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 전 은행의 보유 자산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조세 특별 사면 이용자의 국가별 내역을 살펴보면 15일 현재까지 해외에서 신고된 자산 신고금액의 약 80%는 싱가포르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꿉놀이, 작가 권혜경

여자라면 누구나 어릴적 소꿉놀이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각종 꽃과 식물로 음식을 만들고, 예쁜돌과 조개껍질을 그릇으로 사용했던..

요즘은 그럴싸한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즐비하지만 그 시절 따스한 햇님을 온몸으로 받으며 지천에 널린 소꿉놀이 재료를 직접 구해 놀았던 추억의 재미와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보는 이로 하여금 권혜경작가의 ‘소꿉놀이’는 처음 보는 순간 친숙하게 다가오면서 어릴적 상상의 세계로 이끌게 한다.

하지만 작가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1차적인 소꿉놀이에 작가만의 의미를 투여한다.

“설거지를 하는중 쌓아놓은 그릇이 와르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작은 그릇들을 그려넣기 시작했다.”

꿈과 명예,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 어디론가 앞만보고 뛰어가다 교만과 실패에 좌절하여 일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그릇의 행렬은 돈, 행복, 명예를 쫓아 끝없이 가고 있는 인간의 행렬인 것이다.

그릇은 우리 생활의 밀접한 물건이라 관객에게 각인하기에 부담이없어 작품의 매개체로 사용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이기성, 타인의 눈치만 보는 정체성 없는 우리, 타고난 본성에 대해 되뇌며 보게되는 작품이다.



또한 간혹 등장하는 고양이는 삶의 불안정을 깊어지고 가는 현실에 더욱 불안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양이라는 타자를 개입시켰다.

삶은 의외로 심플하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알고있을까. 내 속의 내가 아니라 여기고 싶을 만큼의 이중성 감정과 이성간 괴리감은 또 얼마나 큰가, 보이려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과연 비고의적인가..

인간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쓰는 가면과 거짓말을 통해 서로 보고, 보여주는 면모가 인간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삶의 궤도와 다른 궤적을 그리는 타인과 일시적으로 같은시기, 한 공간에 있으면서 서로 비교하거나 선망하고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대의 상을 일그러 뜨리기도 하며 때로 서로 자존심을 채워주는 역할을 알면서 주고 받기도 한다.

우리는 항상 또 다른 세계를 꿈꾸며 오늘도 꿈과 이상을 향해 날개짓 한다.

잔뜩 긴장한 미간을 풀고 전보다 좀더 편한 표정을 지어보자.

일상의 시선에서 얻는 진실..

화려하지 않아도 소소함이 주는 잠깐의 여유..

오늘은 또 어떤 곳에서 수줍게 모습을 드러낼까.

때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일상의 시선에서 과거의 어디쯤 통하는 비밀통로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 발견하는 여유를 가져보자.

글: 권미선(한인미협회원)



# 가장 행복한 사치



김 은 속 / 수필가 (한국문협 인니지부회원)  
kimpjogia22@gmail.com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가.

그러면 ‘바탐’의 모든 길은 바탐의 지인인 그녀로 통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 문구를 떠올리며 최근 알게 된 바탐 지인의 초대로 무조건 바탐으로 가게 되었다. 바탐은 내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많이 들어 본적이 있는 섬이었다. 내가 동생처럼 여기던 일가족이 바탐으로 이주를 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바탐에서 관광 오는 이들을 더러 접해서였을 것이다.

족자에 잘 아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그래서 알게 된 그녀는 바탐에는 좋은 곳이 많다고 해서 바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솔깃했었다. 그래서였을까? 바탐에 대한 충만한 기대를 가지고 바탐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라본 너무나 인상적인 바탐의 붉은 흙 때문에 나는 하도 신기해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 조금 더 솔직해져야하기에 사실 골프여행을 간 것이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부류중의 하나가 골프채를 들고 원정골프를 가는 사람들이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진 내가 골프채를 들고 비행기를 타고 바탐을 간 것이다. 처음에는 간담이 서늘했다.

골프채를 들고 여행을 떠나자니 아는 사람을 만나면 실로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의 삶, 내일 모래면 50을 바라본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면서 집안 살림에 묶여도 살아보았고 그야말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이런 선물을 내 자신에게 주는 것도 한번쯤은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서서 너무 과하게 인심을 쓰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기회가 솔직하게 말해 우리 남편이 열심히 살았기에 이런 지인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인연이 있어 이런 귀한지인들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살아오면서



참 좋은사람들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바탐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꿈같은 바탐 여행이 시작 되었다. 바탐 지인은 그곳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바탐의 지리와 여행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까지 알고 있었다. 아니 많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좋은 일이라는 것이 참 하기 어려운데 좋은 일을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바탐의 붉은 흑처럼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3일 동안 그녀가 내게 배려해준 넓은 차량과 멋진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쉬며 골프도 치고 여행도 했다. 그녀에게 고마워서 식사 대접을 하려해도 밥 사주는 게 취미라며 환하게 웃는 그녀에게 지고 말았다. 그렇게 그녀와 족자의 지인과 다니는 동안 나는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보았다.

그곳은 빈판 이라는 곳에 있는 리조트였는데 그야말로 바다해변의 경계가 리조트에 닿아있고 열대야 나무 밑에 파라솔과 벤치가 어우러져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한 폭의 지상낙원의 그림이 그곳에 있었다. 세상에는 지상의 파라다이스가 많다고 한다. 몰디브가 어떤 바다인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리조트도 몰디브 못지 않은 파라다이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행복한 여행을 가능하게 한 그녀가 바탐에 살고 있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든든한 위안이 될 것 같다.

바탐 흙을 만져보니 붉은 물이 손에 흠뻑 들었다. 일과 결혼했다 하면서도 화초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녀가 붉은 물이 손에 번지듯 내 가슴에 곱에 스민다.

이런 여행이 또 언제 내게 찾아올지 나는 모른다. 정말 내 인생에 있어 사치 중에 큰 사치였지만 근 오십년 만에 이런 행복한 사치를 꿈꾸는 것도 사람이라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해보거나 가고 싶었던 어딘가를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모르는 곳을 찾아 간다는 것은 다른 세계를 만난다는 것이며 모르는 것을 해본다는 것은 삶에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는 것이니 살면서 해봄 직하다고 생각한다. 여행이란 그저 떠나는 것이다. 살면서 가까운 곳으로 떠나 힐링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도 충전하면서 본연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얻는다면 천만금이 아깝겠는가.

나는 바탐에 다녀오며 그렇게 아름다운 충전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치를 누렸다. 도와준 족자의 지인과 또 바탐의 물푸레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그녀가 있어 가능했음을 알기에 두분께 너무 감사한다. 모든 이에게 추천하고 싶다. 어디든 좋다. 한번 떠나보시라. 멀리가 아니어도 좋다. 인도네시아 곳곳에 숨은 아름다운 휴양지를 찾아보자. 모르긴 몰라도 아늑한 지상의 파라다이스가 많을 것이다. 그 풍경들은 외롭고 지친 영혼을 환영해 주리라 믿는다. 바탐도 좋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그녀가 있기에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안내할 것이다. 내친김에 바탐의 그녀에게 아예 한 번 더 신세를 져볼까? 그러면 안 되겠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크게 행복한 사치를 누리보고 싶다.

다음에는 아주멀리 떠나보고 싶다. 세계 5대 폭포를 찾아 나선다든지 아니면 세계 7대 불가사이 장소를 찾아 가보는,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이가 들어 더 늦기 전에 나만을 위한 행복한 사치를 한 번 더 누리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사치가 아닐 것이다. 크고 넓게 꿈꾸는 것은 무죄가 아닌가? 그러다가 그 꿈이 덜컥 이루어지면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오게 된다면 과감히 무엇이든 해보자. 나쁜 일이 아니라면 편견을 가지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을 이번 골프 여행을 통해 배웠다. 많은 이들에게 이런 행복한 사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날들이 있기에 삶이란 참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 이 표현이 맞나요?



글: 최서혜

이번 달은 주부들을 위한 특집으로 운전기사나 가정부 또는 유모와의 대화에서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맞는 표현인지 틀린 표현인지 아리송하면서 사용한 적 있으시지요? 이 표현들이 아직 어려우시다면, 적어서 고용인들에게 보여주셔도 좋아요. 일명 ‘바루 다땅 뇨냐’ 분들도 조금만 인도네시아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금방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모두 파이팅!

### 5. 운전기사·가정부·유모 고용할 때 인터뷰 예시

#### #가정부 또는 유모 인터뷰

- 주민등록증 원본이 있나요? *Apakah ada KTP asli?*
- 고향이 어디예요? 몇 살이에요? *Berasal dari mana? Umurnya berapa?*
- 결혼은 했나요? 아이가 있나요? *Apakah sudah berkeluarga? Sudah punya anak?*
- 경력은 몇 년인가요? *Punya pengalaman berapa tahun?*
- 그 전 집에서는 왜 그만 뒀나요? *Bisakah kasih tau alasan berhenti kerja sebelumnya?*
- 전에 어디서 일했나요? *Sebelumnya bekerja di mana?*
- 우리는 애완동물이 있어요. 괜찮아요? *Kami punya binatang peliharaan. Tidak masalah?*
- 영어를 할 수 있나요? *Apakah bisa berbahasa Inggris?*
- 한국음식을 할 수 있나요? *Bisa masak masakan korea?*
- 가불이나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Saya tidak bisa meminjamkan uang.*
- 언제부터 우리집에서 일할 수 있어요? *Kapan bisa mulai kerja di tempat saya?*

#### #운전기사 인터뷰

- 주민등록증 원본이 있나요? *Apakah ada KTP asli?*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원본, 운전면허증 원본, 가족증명서 원본, 범죄증명서 원본을 보여주세요. *Saya minta KTP, SIM, KK dan SKCK asli.*

- 경력은 몇 년인가요? **Punya pengalaman berapa tahun?**
- 그 전 집에서는 왜 그만 됐나요? **Bisakah kasih tau alasan berhenti kerja sebelumnya?**
- 전에 어디서 일했나요? **Sebelumnya bekerja di mana?**
- 3개월은 수습 기간입니다. **Masa percobaannya di tempat saya selama 3 bulan.**
- 저는 운전기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peraturan) Saya tidak bisa meminjamkan uang sama bapak supir.**
- 개인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idak boleh menggunakan mobil untuk urusan pribadi.**

## 6. 가정부 또는 유모에게 알려줄 때

### # 청소

- 청소는 걸레로(먼지 닦는 용) 가구들을 닦은 후,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 걸레질을 하시오.  
**Kalau bersih-bersih, dilap dulu furniture. Terus pakai vakum, baru dipel.**
  - 청소할 때는 먼지가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창문을 여시오.  
**Sebelum mulai bersih-bersih buka jendela dulu, biar debunya keluar.**
  - 화장실 청소는 솔로 구석구석 깨끗이 하시오.  
**Kalau bersihkan toilet, menggunakan sikat sampai di pojokan.**
  - 청소 후에는 걸레를 꼭 짜서 널어야 한다.  
**Habis bersih-bersih, kain pel dicuci dulu, diperas dan dijemur.**
  - 바닥 청소는 물걸레로만 하고, 걸레질이 끝난 뒤 걸레를 빨 때 세제를 쓰시오.  
**Kalau mau mengepel lantai, pakai air biasa saja. Setelah dipel lantai baru cuci menggunakan sabun.**
-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 바닥청소 시 강한 냄새가 나는 세제 사용을 피할 때)  
\*Lap(랍)은 손에 들고하는 걸레를, **kain pel**(까인 빨)은 바닥 청소용 걸레를 의미한다.

### # 세탁

- 세탁기를 돌릴 때 세제는 조금만 써야 한다.  
**Kalau mau pakai mesin cuci, pakai sabunya sedikit saja. Jangan banyak-banyak.**
- 흰 색 옷과 색깔 옷은 따로 세탁하시오. 같이 돌리면 종종 색이 빠진다.  
**Baju putih dan baju berwarna dipisahkan untuk dicuci. Kalau dicampur suka luntur.**
- 바틱 옷은 다른 옷과 섞지 말고 따로 돌려야 한다.  
**Baju batik dipisahkan dengan baju yang lain. Jangan dicampur.**
- 우리 옷과 네(가정부) 옷은 따로 돌려야 한다.  
**Kalau mau mencuci baju saya dan baju mbak harus dipisah. Jangan disatukan.**
- 아기 옷은 어른 옷과 섞지 않고 따로 세탁하시오.  
**Baju bayi harus dicuci sendiri. Jangan dicampur dengan baju orang dewasa.**
- 음식이나 과일이 묻은 아기 옷은 얼룩이 남지 않게 바로 손빨래 하시오.  
**Baju bayi terkena bubur atau buah, harus langsung dikucek saja. Agar tidak bernoda.**

-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시오.  
*Sprei, selimut, sarung bantal dan sarung guling cuci seminggu sekali.*
- 세탁 후 세탁기 뚜껑은 열어 놓으시오.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Habis mencuci, mesin cucinya dibuka aja. Takut nanti ada jamur karena lembab di dalamnya.*
- 세탁 후 세탁기 내부 거름망에 쌓인 찌꺼기를 치우시오.  
*Habis mencuci, bersihkan kototran di dalam filter mesin cuci.*

## # 부엌에서

- 이 채소를 씻으시오. *Cuci sayur ini.*
- 기름기가 없도록(미끌거리지 않도록) 바닥을(가스렌지를) 깨끗이 청소하시오.  
*Bersihkan dapur biar lantainya(kompornya) tidak licin.*
- 세제 잔여물이 남지 않게 그릇을 충분히 행구시오.  
*Piring-piring dibilas dengan air yang banyak. Supaya tidak ada bekas sabun.*
- 냉장고 정리를 하시오. *Rapikan(Rapiin) kulkas.*
- 쓰레기는 자주 치우시오. 바퀴벌레와 개미가 생길 수 있다.  
*Sampah sering dibuang saja. Takut ada kecoa dan semut(serangga 곤충, 해충).*
- 전자레인지와 밥솥은 하루에 한 번 닦으시오.  
*Microwave dan magic-com(nice cooker) dilap sehari sekali.*
- 쌀을 씻은 뒤, 밥을 안칠 때는 아쿠아(생수)로 하세요.  
*Setelah cuci beras, masak nasi dengan aqua.*
- 밥을 하시오. *Masak nasi.*
- 수저를 삶으시오.  
*Steril(rebuskan) Sendok dan sumpit.*
- 물이 다 끓으면 차(티백 등)를 넣고 불을 끄시오.  
*Kalau airnya sudah mendidih, celupkan teh. Lalu, matikan kompor.*
- 식으면 그릇에 담아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으시오.  
*Kalau sudah dingin, taruh di piring di-wrapping. Lalu, masukkan ke kulkas.*
- 가스가 떨어졌으니, 에이전트에 전화하시오.  
*Tabung gas habis, coba telpon ke agen.*

## #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 *Rebus, merebus* = 삶다 / *Didih, mendidih* = 펄펄 끓이다
- *Panaskan* = 데우다
- *Golak, bergolak* 또는 *menggelembung* = 부글부글 끓다
- *Kukus, mengukus* = 찌다
- *Goreng, menggoreng* = 튀기다(기름에)
- *Tumis, menumis* = 볶다
- *Bakar, membakar* = 굽다(불에 바로 당게, 바비큐처럼)
- *Panggang, memanggang* = 굽다(오븐 등에 굽다)
- *Mengaduk* 또는 *campur* = 섞다
- *Memotong* = mengiris = 썰다

- **Membekukan** = 얼리다
- **Mencairkan** = 녹이다
- **Blender** = **haluskan dengan mixer** 갈다
- **Tumpuk, menumpuk** = 쌓다
- **Difermentasi** = 숙성시키다. 발효하다.

## 7. 운전기사와의 대화 예시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또는 아이 유치원이나 통학길에 매일 마주치는 운전 기사와의 대화에서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단어 몇 개만 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앞에 **Pak(Bapak)**과 함께 **minta**나 **tolong**을 쓰면 공손한 표현이 되고, 바로 동사를 쓰면 명령어가 됩니다.

- 9시까지 데리러 오세요. **Minta jemput jam 9, ya.**
- 아이들을 (OOO에서) 데려오세요. **Minta jemput anak-anak (dari OOO).**
-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세요. **Minta antar anak-anak ke sekolah.**
- 얼마나 걸리나요? **Berapa lama dari sini sampai ke sana?**
- 가까운가요? 먼가요? **Dekat atau jauh?**
- 주유소에 들렀다가 OOO에 갑시다. **Mampir pom bensin dulu, ke OOO.**
- 속도를 줄여주세요. **Tolong kurangi kecepatannya.**
- 속도를 좀 내 주세요. **Tolong lebih cepat.**
- 천천히 가 주세요. **Pelan-pelan saja ya.**
- 저 앞에서 유턴하세요. **Tolong putar balik di depan situ ya.**
- 직진하세요. **Terus saja / maju saja**
- 우회전 **Belok Kanan** / 좌회전 **Belok Kiri**
- 추월하지 마세요. **Jangan mendahului mobil depan.**
- 안전 거리를 유지하세요. **Jaga jarak dengan mobil depan.**
- 졸지 말아요. **Jangan antuk(ngantuk).**
- 왼쪽 차선을 타세요. 좀 있다 좌회전해요. **Ambil lajur kiri. Sebentar lagi belok kiri, ya.**
- 일방 통행 **Jalan satu arah.**
- 여기 세워 주세요. 여기에 내릴게요. **Minta berhenti di sini. Saya mau turun.**
- 에어컨 온도를 높여주세요. 저는 춥네요. **Kurangi AC ya. Saya dingin.**
- 에어컨 온도를 낮춰주세요. 저는 덥네요. **Besarkan AC ya. Saya panas.**
- 에어컨 프레온 가스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Kayanya harus isi freon gas AC.**
- 곧 STNK(차량등록번호)/SIM(운전면허)을 연장해야 됩니다.  
**Bentar lagi, harus memperpanjang STNK/SIM.**
- 차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누가 (심심풀이로, 할일 없는 사람이) 열쇠로 긁어놓은 것 같아요.  
**Ada goresan di dekat pintu mobil, sepertinya ada yang iseng menggores mobil Mr.**
- 차에서 대기할 때 공회전은 안 됩니다. 시동을 끄고 대기하세요. **Kalau sedang menunggu, jangan nyalakan mobil. Kalau standby matikan mobil.**
-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한국에서는 영어에서 온 ‘트렁크’ 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는 ‘**bagasi**’ 를 쓴다. **Tolong (di)buka bagasinya.** (디부까, 부까 둘 다 쓰이나 뉘앙스로는 디부까가 더 공손한 표현)
- 고속도로 돌비 영수증은 모아두세요. **Struk tolnya dikumpulkan saja.**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 투자원칙 허가 (Izin Prinsip PMA) 신청 및 회사 설립정관 (Akta Pendirian Perseroan Terbatas) 작성시 유의사항



**Q1.** 저희 회사는 Jakarta Selatan에 위치한 PT. Manse Sehat Sejati이며 PMA입니다.

회사의 주소지는 Jalan Jawa No.21 Perum. Abas Jawa Blok E2 No.1인데 회사 TDP(회사 등록증)가 만료되어서 자카르타 남구청에 가서 연장 신청을 하였더니 그 주소지에 더 이상 PMA(외자투자) 기업의 주소지로서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처 Ruko라도 옮겨야 하나요?

**A.** 지금은 BKPM(투자 조정청)에 투자 승인 신청단계에서부터 만약 회사의 소재지가 주택단지에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옵니다.

PMA의 주소지는 Wisma, Gedung, Menara, Tower, Center, Building등을 사용하는 건물안에 소재해야 하며, 문의하신 Ruko(Rumah+Toko)안에도 신규허가는 어렵고 최소한 Rukan(Rumah+Kantor)의 명칭을 사용하는 상업단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Q1.** 잘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세가 확장되어서 내년부터는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직접 제조,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후보지로서 Cikarang Javabeka 공단과 Subang군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장도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주소지에 제한이 있습니까?

**A.** 예, 맞습니다. 공장도 사업장 주소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BKPM(투자 조정청)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근처에 이미 조성된 공단이 있는데도 근처의 사유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신청하면 허가를 안하면서 공단내에 위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2번째 방안인 Subang군의 사유지 근처에 조성된 공단이 없으면 사업장 주소지로서 받아 들여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사유지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

사항은, BKPM에 투자승인 신청하기 이전에 해당 시,군 Dinas PTSP 또는 Dinas Tata Ruang에 직접 방문하여 매입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의 지목이 Zona Industri인지 여부를 확인 후 공장의 주소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2.** 저와 제 친구는 PT. Jalan Jalan Terus라는 여행사 PMA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Notaris(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저의 지분 51%와 친구 지분 49%로 외국인 자본이 100%인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정관을 작성 후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KPM에 가서 투자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BKPM으로부터 자본금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A.** 예,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시 업종별 지분을 제한하는 Daftar Negatif Investasi (DNI) 즉 Negative List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의미는 DNI(Negative List)에 금지나 제한이 안된 업종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제도이며, Positive List 즉 허용된 업종 외에는 전부 금지 또는 제한 한다는 제도의 반대입니다.

PT. Jalan Jalan Terus는 여행업으로서 외국인 지분이 67%밖에 허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는 지분을 변경하는 정관변경(Akta Perubahan)후 BKPM에 투자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Q2.** 그러면 Notaris 사무실에서 설립 정관(Akta Pendirian Perseroan Terbatas)을 작성 후 BKPM에 투자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투자승인 신청 후 투자원칙 허가서(Izin Prinsip PMA)가 발급된 후에 Notaris 사무실에서 설립정관을 만들어야 합니까?

**A.** 일반적으로 국내자본 기업의 경우, 먼저 Notaris 사무실에 가서 회사 설립정관을 작성 후 법무인권부(Menkumham)에 정관 등록을 마치

면 법인의 자격을 취득하지만 외국인 투자(PMA) 회사설립시에는 상기와 같은 DNI(Negative List)업종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즉 투자원칙 허가서(Izin Prinsip PMA)를 취득후 그 다음에 Noatris 사무실에 가서 회사 설립정관을 작성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회사의 History를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Tips 1.** 회사 설립정관을 아직 작성 안했는데 회사 상호를 어떻게 투자원칙 허가서(Izin Prinsip PMA)에 기재 하느냐는 문제에 회사의 발기인이 Notaris 사무실에 방문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Notaris는 법무인권부 AHU에 회사 상호 조회를 신청하여 타 상호와 중복이 안될시 사용 가능 승인이 나오면 60일간 상호 예약이 가능하며, 60일 기간 만료 7일전에 연장도 가능합니다.

**Tips 2.** 회사 설립정관(Akta Pendirian Perseroan Terbatas)은 모든 Notaris(공증인)가 동일하게 20개 Pasal(조항)로 된 정관을 만듭니다.

그 근거는 Undang-Undang No.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주식회사법)에 근거하여 거의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발기인은 비록 진행 절차는 위임을 주어서 설립 진행을 하여도 정관에 서명시에는 최소 2인 발기인중 1명은 반드시 참석하여 최소한의 중요한 Pasal은(예, Pasal 1, 2, 3, 4, 5, 8, 20) 본인이 확인후 서명하여야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 : 김 중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인도네시아 민법(9)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 11. 계약법(Hukum Perikatan)

민법전 제3권은 계약법이다. 법은 모든 사람간의 관계와 법인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종교단체와 소속멤버의 관계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본다. 권리 의무의 관계란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지로 성립되는 계약과 당사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때문에 자동으로 발효하는 계약이 있으며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본다. 인도네시아 법제도에서 계약을 규정한 기본법은 민법이며 모든 법규는 이해관계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법의 기본법인 민법은 사람이 엄마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엄마 배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유산을 상속받는 자는 고인의 채무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긴다.

### 11.1. 계약법의 원칙

민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법의 원칙에는 i) 계약 자유의 원칙, ii) 합의의 원칙, iii) 신의의 원칙, iv) 구속의 원칙, v) 평등의 원칙, vi) 형평의 원칙, vii) 확실성의 원칙, viii) 도덕의 원칙, ix) 적절의 원칙, x) 관행의 원칙이 있다.

### 11.1.1. 계약 자유의 원칙

민법 제1338조는 “적법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 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내용, 이행 및 조건, 계약의 형태(구두 혹은 서면 계약)등을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약자유 원칙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정한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예” 를 들면 취업이 절실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의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유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정법과 사회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 11.1.2. 합의의 원칙

계약당사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결정된 합의를 뜻하며 강제 혹은 허위로 체결된 계약은 해약 사유에 해당된다.

### 11.1.3. 신의의 원칙

계약당사자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이므로 양 당사자는 계약에 자신을 구속시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 11.1.4. 구속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내용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 적절, 윤리, 도덕 및 법규적으로 구속된다는 사실이다. 계약서에 상호 합의로 포함시킨 내용일지라도 내용이 상기한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계약 내용을 실효시킬 수 있다.

#### 11.1.5. 대등의 원칙

계약 당사자들은 민족, 피부 색깔, 종교, 사회적 지위, 빈부 혹은 지식의 차이 등 여하한 이유에 관계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구매업체와 납품업체 간, 부동산 분양업체와 소비자 간, Project Owner와 Contractor 간, 여하한 관계일지라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평등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계약이 실효시킬 수 있다.

#### 11.1.6. 형평의 원칙

계약이 내용이 계약 당사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고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와 납품하는 업체 간에 원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부자재를 납품받는 업체가 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원부자재 대금 지불 시한을 업계의 관행에 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길게 잡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러한 계약은 공정거래 감독위원회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다.

#### 11.1.7. 확실성의 원칙

계약 내용이 법적으로 확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계약 내용이 애매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 11.1.8. 도덕의 원칙

계약 내용이 부도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도덕의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지의 도덕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계약결혼은 서양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인의 도덕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결혼 계약서를 체결한 상대자가 돈만 받고 계약결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인도네시아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 11.1.9. 적절의 원칙

적절의 원칙은 민법 제1339조에 “계약은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 뿐 만 아니라 그 내용의 성질 상 그 내용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 관행, 대등 혹은 공정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내용이어야 한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일지라도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 11.1.10. 관행의 원칙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은 이미 계약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면 목장 주인 김사장과 가축 도매상 이사장 간에 가축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가축을 다음 달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계약서 내용 중에 양수 전에 가축에게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관한 책임 소재가 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수 전에 가축이 병이 들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버린 경우에 계약서에는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가축 시장의 관행에 따라 그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인인 목장 주인 김사장이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음 호에 계속)

## UPH (Universitas Pelita Harapan)은...



현재 UPH는 1994년 Pelita Harapan/ Yayasan Universitas Pelita Harapan 재단이 설립이 된 후, UPH 교육 재단으로서 땅그랑 리브 까라와찌 지역에 설립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 외 미국, 러시아, 한국, 중국 그리고 독일 등의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다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국제 캠퍼스입니다. 교외로 UPH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호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베트남, 미국, 한국이 있으며 국내 교환학생 신청 가능한 학교로는 한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천대학교, 숭실대학교, 그리고 경성대학교의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학생분 들은 International office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2500~3000명 정도의 신입생들이 입학 하며 입학 후 Regular class 을 선택한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인도네시아어로 듣게 되고 International class을 선택한 학생들은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UPH 안에서 국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있는 학과 들은 경영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치학과, 호텔 경영학과,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4년제에서 3년제 제도로 바뀌어 1년에 3학기 나뉘어 있으며, 첫 입학 학기를 제외한 1,2,4,5,7,8, 학기의 학비는 약 Rp.13,000,000 이고, 3,6,9 학기는 약 Rp.6,400,000 이지만 매년 학비는 오르는 추세이며 입학 시 학비는 졸업 까지 변동 없습니다. 1년 3학기 제도 시행으로 인해 타 학교에 비해 방학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UPH 교내 한인 학생회가 생성되었고,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던 한인 학생회는 현재 약 졸업생을 포함해 약 100명 의 한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인 학생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코트라와 연계한 취업간담회, 신입생 환영회, MT, 한인 청년 체육대회, 설날 및 추석 행사, 각종 스포츠 행사, 대외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정보가 부족한 한인 학생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 까라와찌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 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한인 식당과 마트 등 한인사회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안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안전한 편으로 인식되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UPH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 김가람(UPH 재학생)



## 움불 뽕곡(Umbul Ponggok)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Umbul Ponggok 입니다.

Umbul Ponggok는 중부자바 Klaten지역에 위치한 물을 접할 수 있는 여행지로 현재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공적이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수영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이 계속 뿜어져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다. Umbul Ponggok에서 Umbul은 air mata, ‘샘’ 이라는 뜻과 마을명인 ‘Ponggok’ 의 합성어입니다.

이 곳은 몇 백 년전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사탕수수 재배 관개 작업으로 인해 현재는 이 곳 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2년부터 Klaten 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곳은 50 X 25 미터의 크기로 수심은 1.5- 2.6 미터 이다. 입장료는 일 인당 RP 8.000 루피아 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서 풀의 특징뿐 아니라 이곳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물속에서의 사진촬영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

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양지 측에서는 일상의 다양한 물건, 책상, 의자, 텔레비전, 핸드폰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물속에 잠겨져 있어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야마하 RX-King, Honda CB200, DKW 와 Vespa 모델까지 구비되어 있으며 대여료는 1시간에 Rp 10만 루피아 입니다.

Koei, Nila Merah, Bawal 다양한 물고기와 일상생활의 물건들과 재밌는 설정으로 ‘수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뿐만 아니라 초보자들도 쉽게 스노우쿨링 (Rp 20,000/ 입장료, 구명조끼 포함), 파워다이빙 (Rp 20만 루피아/ 20분)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즐기는 팁!

- 여행자는 본인의 수중 카메라를 가져가면 더욱 실감나는 순간을 찍을 수 있다.
-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낮은 수심에서 관리자의 도움을 받으며 수중 사진 체험을 할 수 있다.
- 사진을 찍을 때, 물고기 밥을 준비하여 나눠주면 더욱 멋진 순간을 찍을 수 있다.

글: 이승진(한인회 간사)



## [안인의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각 기업, 단체, 협의회, 동호회, 동창회 등의 모임에서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Rp. A/C NO: 001-001-100-20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여권 혹은 키타스 사본, 사진1매(크기에 상관 없음)

## 2016년 9월 안인의 법인 및 임원 찬조금 납부 명단

\*2016년 9월1일-9월30일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	
				USD	IDR
1	한인회 법인회원	Achmad Baiquni	BANK NEGARA INDONESIA (BNI)		135,000,000
2	한인회 법인회원	윤 조 현	한국세라믹인도네시아		86,800,000
122	한인회 이사	송 광 중	MOTONIC INDOPARTS		13,200,000
총 금액				\$-	Rp235,000,000

## 2016 안인의 임원골프대외 및 안인뉴스 창간 20주년 행사 찬조 명단

성명	찬조품	수량
오세명	상품권	2백만 루피아
하갑용	올댓티크 가구 상품권	5백만 루피아

※ 9월호에서 누락된 명단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특수직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1. 복요리전문
2. 직수입한 삼합
3. 비즈니스컨셉 (삼계탕)
4. 돌잔치, 모임, 케이터링행사 대환영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b>• 대학교</b>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준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인니지회사무국장한규성)	0818 890 571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합니다  
 투자상담 / 법인설립 / 각종인허가 /  
 비자 / 마케팅리서치 / 인력채용 / 부동산

Tel : 021-7918-4239  
 HP : 0811-146-3700 / 0811-8800-451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머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존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지)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꿀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꿀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지)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짜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카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짜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Contact :**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ACCREDITED ACSIS, edexcel Approved Centre, QUALIFIED TEACHERS

[www.ichthusschool.com](http://www.ichthusschoo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0811 980 500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인력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발	830 9990
한올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989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상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워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b>●항공</b>		
대한항공(KAL)		768 377
<b>●종교단체</b>		
한인교회		462 222
<b>●슈퍼마켓</b>		
한국슈퍼마켓		281 929
<b>●여행사</b>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b>●식당</b>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서날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21)521 2515
<b>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b>	<b>0812 1960 308</b>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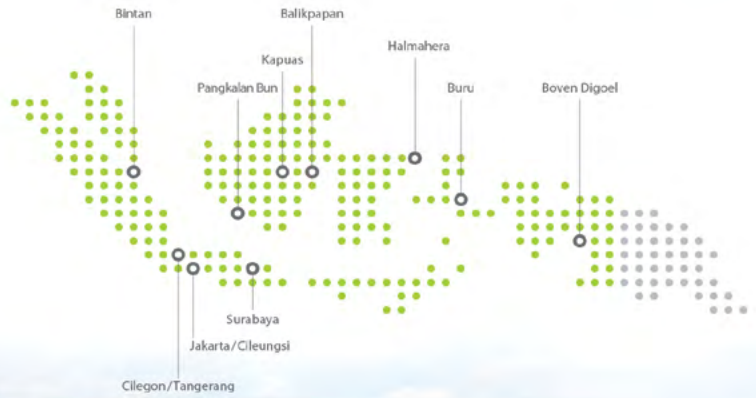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 지역 한인회 주소록

2016년

번호	지역	직위	성명	휴대폰
1	발리	회장	안 복 희	0813-3808-6990
		부회장	편 성 호	0812-389-0694
		부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 총무	최 경 희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	손 민 석	0858-5732-0669
2	반둥	회장	엄 정 호	0812-201-8309
		수석 부회장		현재 공석
		사무 국장	남 상 일	0812-2400-0303
3	케프리주 바탐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 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사무 국장	정 규 철	0812-701-6090
		총무	이 상 구	0821-7356-8405
4	보고르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	회장	홍 상 철	081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현재 공석
7	동부자바 (수라바야)	회장	배 춘 식	0811-332-4001
		수석 부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 총장	김 태 현	0818-321-332
		수석 총무	정 상 원	0812-3373-8798
		총무	박 한 진	0813-5274-8703
		총무	배 기 보	0812-3251-5518
8	중부자바 (스마랑)	회장	김 소 웅	0811-278-8909
		사무 국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 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	회장	박 병 엽	0821-3352-638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	회장	박 상 규	0812-2523-7001
		수석 총무	조 영 성	0813-9032-3355
		총무	양 세 환	0822-2719-9135
11	땅그랑 반뜰	회장	오 세 명	0816-187-8582
		간사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 술라웨시	회장	이 재 호	0811-444-190
		총무	한 정 곤	0811-419-200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 KIDECO

##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www.kideco.com](http://www.kideco.com)  
[marketing@kideco.co.id](mailto:marketing@kideco.co.id)

